금주의 법구–〈유행경〉
천하고 귀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천하고 귀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28일)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약진하는 캠퍼스포교 '쉼·봉사' 니즈 주요

성공한 대학불교동아리 비결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미래로 평가 받는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캠퍼스 포교가 약진하고 있다. 전국 각 대학 불교동아리들이 '쉼'과 '봉사' 등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도입하고 사찰의 지원이 이어지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불교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대 불교학생회(회장 김승회)는 신입회원으로 63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까지 전남대 불교학생회는 회원이 5명에 불과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의 부흥은 새내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형태의 동아리방을 새롭게 만든 것이 원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전남대 불교학생회는 지도법사 송광사 교무국장 정응 스님 등 송광사 스님들과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지역신행단체와 연계한 봉사·수행활동도 기획했다. 2~30만원가량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우체통을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방을 고쳐주는 공부방 리모델링, 다문화가정 돕기 등도 함께 소개했다.

김승회 전남대 불교학생회장은 "편히 대화를 나누고 쉴 수 있도록 쉼터처럼 동아리방이 지난 겨울방학 리모델링 됐다.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신입회원 모집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도 동아리에서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 송광사에서 지역사찰을 연결해줘 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회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여자간호대 불교학생회(회장 김가언)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신입회원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을 동아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김가언 서울여자간호대 불교학생회장은 "올해부터 조계종 산하 보현데이케어센터를 동아리 지정 봉사처로 협약을 맺었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고 신입생들에게 이를 중점 설명했다"며 "이와 함께 간호대 내 기수, 학번을 탈피하여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이별로 소모임을 묶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도 함께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신입회원 전원이 동아리회비를 내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대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접근과 함께 선배들과 인근 사찰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경우 지난해 회장과 부회장 2명만이 남아 폐쇄 위기였지만 선배들과 지역불교계의 장학금 전달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올해 12명이 새로 가입했다. 현재 40여 명의 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도 선배단과 방학기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아리박람회 외에도 새내기 OT를 비롯한 행사에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올해 10여 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했다. 제주교육대의 경우도 선배단의 노력으로 대불련 제주지부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며 신입생 73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신입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동아리 내 문화"라며 "선후배를 넘어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학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인맥구축도 될 수 있는 활동 등이 도움이 된다. 선배단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학생 포교는 사찰의 청년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도법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찰과의 결연과 정기적인 대학생 법회 및 템플스테이 개최, 개별 불교동아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조직 등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63명 가입 성과
서울간호대 23명 가입
쉼 공간, 수평문화 조성
사찰·선배 지원도 효과



적멸의 길 나선 '염다래'의 시자 조주의 끽다거(喫茶去)를 염다래(拈茶來)로 이끌어낸 경봉 선사의 다풍을 이은 통도사 극락선원장 고원당 명정 스님이 3월 25일 적멸의 길로 떠났다. 법랍 60년, 세수 77세. 스님은 경봉 선사를 시봉하며 가르침을 받고, 전국 선원을 다니며 선풍진작에 평생 힘써왔다. 특히 경봉 선사 설법집과 서간집, 사진집 등을 발간하며 스승 선양에 앞장서기도 했다. 사진은 28일 통도사서 엄수된 영결식에서 명정 스님의 후학들이 법구를 이운하는 모습. 통도사=하성미 기자

종회의원 직능대표 '나눠먹기' 강화되나

[분석]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입법활동

방대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
해석 놓고 20년 넘게 논란된
직능대표 '전문성' 조문 삭제

행정 편의성 담보 예상되지만
계파 간 나눠먹기 우려도 나와
총무원장 단독후보 땐 '무투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과정에서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문성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직능대표의 '계파 간 나눠먹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3월 26일 개원한 제214회 임시회서 2건의 종헌 개정안과 18건의 종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종회 개원 전에는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주목받았으나 끝내 철회되면서 방대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법 개정안은 긴 토론 끝에 가결됐다. 표면적인 개정취지는 사찰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보다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과정에서 요구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라는 조문이 삭제됐다. 이로써 1994년 개혁회의가 제정한 직능 분야별 전문성은 더 이상 법적 테두리에서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선출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직능대표 선출의 행정 편의성이 담보된다. 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거쳐 직능대표들을 선출해온 '계파 간 나눠먹기'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축조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정범 스님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3독회 개정안 가부 의결단계로 넘어가 별도의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20년 넘도록 문제로 거론된 내용이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삭제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종회의원 A스님은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문 삭제에 종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종회의원 B스님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공정한 선출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말사 주지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내용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입후보자 인원과 별개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의원 권한 확대 법안 '전부 무산'

이번 임시회서는 종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눈길을 끌었지만 전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종회의원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3권 분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관련 법안으로 △종헌개정안(교역직 종무원 겸직 허용) △호계원법 개정안(종회의원 변호인 참가 허용) △직영사찰법 개정안(직영사찰 관리인 겸직 허용) △중앙종회법 개정안(매월 의정활동비 지급) 등이 발의됐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점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법안은 토론과정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자 발의자들이 철회했다.

이처럼 종회의원 권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되자 법안 발의 시 신중을 기하자는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우 스님은 "많은 의원스님들이 발의에 동참하셨는데 빠른 철회 입장에 웃을 일이 아니다. 앞으로 서명할 때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구중심제 일환으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안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유관 종법개정안들은 이월됐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의 주 취지인 승려복지 재정과 신도시 포교 거점 마련 등이 본사별로 차이가 있고, 특별분담사찰의 교구 목적분담금 납부와 본사주지의 당연직 교구종회 의장 등에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종회는 28일까지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비롯해 각종 인사안,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윤호섭 기자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근본 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기해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소서.

보살계 일정
입재 2019년 04월 09일(음. 3. 5) 화요일
회향 2019년 04월 11일(음. 3. 7) 목요일

●동참금 5만원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접수처 화엄전 ●전화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노조 · 군승혼인 · 비구니회… “대안 마련을”

조계종 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주요 종책질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서는 노동조합과 군승혼인 대책,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종책질의가 쏟아졌다. 공식 문건 종책질의만 44건에, 현장 추가 질의까지 합치면 50건이 넘는 질의가 잇달았다.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내용을 정리했다.

조계종 노조 온도차 극명

이번 임시회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지난해 9월 20일 출범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의 행보다. 조계종노조는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3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으로, 사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본회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조계종노조를 바라보는 의원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부의원들은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상대로 사실상 제소했다는 점에서 강경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다른 일부의원들은 이미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갈등 양상이 아닌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식 문건 종책질의만 44건
추가질의 포함 50여건 다뤄
집행부 현안 적극 대응 당부

심우 스님은 조계종노조가 산별노조라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심우 스님은 “산별노조는 중앙종무기관뿐만 아니라 본말사 종무원들까지 가입 가능하다. 총무원장스님이 교섭에 나서면 결국 일반 사찰에서는 주지들이 종무원들과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급여와 처우가 타종단, 타종교계보다 열악한 상황인지를 물었다.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서는 약 50건에 달하는 집행부 종책질의가 다뤄졌다.

이에 기획실 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조계종노조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거세졌다.

법원 스님(직할교구)은 “노조 출범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말하는 도반들이 있다. 말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얘기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일감 스님은 조계종노조 가입자도 종무원 일원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감 스님은 “(노조를)우리 식구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번 문제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벌어지지 않은 일이면 예방해야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협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혜일 스님은 “조계종노조보다 오래전 창립된 종무원조합 인원이 10배쯤 많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승혼인 ‘대응 미흡’ 지적

종책질의서는 군승의 혼인으로 인한 전역처분 관련 소송에 집행부와 군종교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이를 관장하는 군종교구가 연수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등안 스님은 “해군군승 1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승소해 다시 복귀하고, 승적을 태고종으로 변경했다. 또 공군군승 1명은 조계종을 상대로 패소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TFT 구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군승혼인 문제와 관련해 총무원 공식입장은 종헌종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자 군승출신 종회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법원 스님(직할교구)은 “2명의 법사가 군승의 결혼금지 이후 혼인했다. 문제는 이후 군승들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을 때 종헌을 개정한 취지가 무너진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한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응이 미흡해 우려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방향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거공약과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의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당초 종법기구화는 비구니계의 중지를 모은 사안이 아닌 것으로, 총무원이 이를 먼저 제안한 배경을 묻는 것이었다.

정운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특별교구, 종법기구화 등 공약이 나오지만 전국비구니회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어떤 내용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화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종법기구화는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고민하며 나온 하나의 공약”이라며 “비구니회 집행부와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책질의서는 이외에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연기 배경, 교역직 종무원의 복지혜택 상향, 대정부 정책, 종교편향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비구니 의료복지 · 군포교 사업 ‘박차’

전국비구니회, 올해 예산 약 12억 원 확정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의료복지와 군포교를 주요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22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약 12억2876만원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먼저 전국비구니회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8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조계종 비구니 · 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스님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천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의료비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한다. 전국 모든 병 · 의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 중 치료 목적 외 금액은 제외된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는 239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수계법회는 7월 27일 오후 2시 봉행된다. 이외에도 전국비구니회는 사찰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온가족 사찰음식 대잔치, 승가교육 ‘선요강설’ 등에 대한 예산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올해는 11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의 노고 덕분에 전국비구니회 50주년 행사를 치르고, 큰 서원이었던 명사법계 품서식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전국비구니회는 언제나 스님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2016년 제명한 제10대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과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에 대한 복권을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지역 본말사 화합해 종단 안정”

수덕사 주지 정묵 ·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임명

교육불사 · 성역화기금 기탁
장경사 주지에는 진광 스님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과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에게 각각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를 재임하게 됐다.

이날 주지 임명 이후 수덕사는 (재)아름다운동행에 교육불사기금 1000만원을, 선운사는 성역화불사기금 2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과 교구가 함께 발전하고 한국불교 이념이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본말사의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묵 스님은 “종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 스님은 “종단 안정에 앞서 본말사가 먼저 화합해 종단 발전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에는 진광 스님이 임명됐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선본사 · 호압사 주지와 제12~15대 중앙종회의원,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수덕사 주지로 부임했다.


정묵 스님


경우 스님


진광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수계했다. 만일사 · 청연사 · 장경사 주지 및 총무원 사서실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선운사 주지로 임명됐다.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동명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했다. 청연사 · 성라암 · 불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총무원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원형복원은 무엇인가’ 화두 던지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남긴 것들

감사원 “원형과 달라” 지적에
“역사성 보존 조치였다” 반박
전문가도 복원 과정 이견 無

근대 이후 도입된 ‘원형’개념
지금까지도 논의 중인 상황
원형 개념 정립 · 원칙 세워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월 23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부실복원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3월 21일 공개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정비를 진행하면서 일관성 없이 축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석탑 상 · 하부 내부 형태가 원형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의 요지는 △해체 당시 확인된 축석 방식의 기술적 재현 가능성 등 원형 복원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설계도서를 마련하지 않고 시공 △적심부 충전재 자문 없이 변경 등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구조안정성 검증과 조치 방안 검토를 통보했으며, 일관성 있게 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 내부 적심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가치 보존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20년에 걸쳐 해체 보수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 공개 선언 하루 만에 부실 복원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이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지적하는 주된 요지는 현 복원이 ‘원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형’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도 문화재 원형 개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발간하는 문화재 보존 학술지인 〈문화재〉는 지난 2016년 문화재 원형 개념에 대한 기획특집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특집에서 이수정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학예연구사는 한국 문화재 보존 · 관리에 있어서 원형 유지 원칙이 어떻게 유입 · 안착됐는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원형’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1921년으로 권덕규가 석굴암 보수방식을 개탄하면서 사용한다. 이후 원형 개념의 역사성은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쪽으로 안착됐다.

이수정 학예연구사는 “국제적 보존원칙서 역사성은 모든 시대적 층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원형은 문화재가 탄생한 특정 시기의 모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 관계에 대해서 살핀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건축문화재에서 ‘원형’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보존의 출발점”이라면서 “건축문화재 원형 논쟁은 예술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의 원형 가치 경중에 따른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185t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해체된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해체 전 형태 유지부터 부분 · 완전 · 라임스톤 활용 · 두랄미늄 활용 등 다양한 복원 방안이 제기됐다. 결국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6층까지 되살리는 ‘부분복원’을 선택했다.

마지막 기록 사진도 6층까지 확인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부재도 7층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수정비 주된 방향 중 하나가 ‘추정 복원 지양’이었다. “남아있는 상태로 수리함으로써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는 게 지난해 석탑 언론 공개 당시 실무진의 설명이기도 하다.

일선 문화재 전문가들도 복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밝히기 않았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할 수 있는 석탑 복원 중 최선의 복원”이라며 “20년 간 석탑을 복원하며 한국 문화재 보존기술도 함께 발전했다”고 밝혔다.

학계 원로학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 추정 복원 지양이라는 기관의 기본자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복원된 석탑의 서측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조금은 더 원형적인에 접근했으면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다. 행정적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돌려줄 위기 놓인 ‘은닉 성보’

‘몰수’ 선고 없는 점 이용해
사립박물관 A씨 반환 소송
현 형사심도 ‘몰수’선고 없어
검찰 · A씨 항소… 2심 진행
피해 사찰 “부모 잃은 죄인”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장. 방청석에 스님들이 대거 자리했다. 사립박물관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심리 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상기된 얼굴의 스님들은 판사와 검사, 상대측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왜 스님들은 법정 방청객에 자리한 것일까.

이야기는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 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 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몰수 여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 역시 양향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뤄진 문제는 또 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그는 2014년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돼 2016년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법원은 몰수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관련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인은 “A씨의 은닉문화재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설사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어도 추후 자의가 아닌 결정이었음을 내세워 민사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반환된 판례가 있다. 몰수 선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조계종 역시 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차례 보냈다.

지난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가장 애가 타는 것은 피해 사찰들이다.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1993년 8월 27일 새벽 1시 절에 몰래 들어와서 부처님을 훔쳤다. 25년동안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니며 부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부모님이다. 부모를 잃어버린,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왔다. 다시 우리 부처님이 사찰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여전히 오류 있는 도덕교과서 불교서술

불교사회硏 · 강창일 의원, 3월 27일 세미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 · 중 · 고교 도덕 · 윤리 교과서의 불교 서술이 단편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초 · 중 · 고 고등학교 도덕 · 윤리 교과서 불교관련 서술내용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초 · 중 · 고교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를 연구 · 분석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 서술 내용을 살핀 김완수 전북 이리 부송초 교사는 “영역명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불교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면서 “간혹 명상의 과정이 언급되고 법정 · 틱낫한 등 유명 스님들이 해당 주제에 맞게 소개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속 불교관련 내용’을 분석한 김은미 전주교대 강사는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등 자연과 초월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현행 9종 교과서가 모두 불교 윤리학적 논의를 다루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교과서에서 종교들 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설명할 때 불교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반복하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선 해탈해야 한다’는 단선적 논지로 설명한다. 충분한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자칫 불교를 허무주의 · 비관주의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신희정 창원 중앙고등학교 교사 역시 불교 핵심 용어이 단순 나열, 압축 요약 등의 방식으로 설명돼 학생들이 올바른 불교 이해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주 울산 무거초교 교사, 허남결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신성민 기자

도심 속 ‘참선지도사’ 거듭나보자

참선지도자협회, 제2기 참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지난해 도심 속 참선 열풍을 불러일으킨 참선아카데미가 올해에도 마련된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4월 12~13일부터 7월 19~20일까지 각각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기 참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일반인반 12일 오후 2시 개강해 7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120분간 진행된다. 직장인반은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참선아카데미는 260명이 수강해 주목받았다. 올해에는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강의에 나선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대종사 혜국 스님의 특별법문,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 스님의 ‘참선 이론과 실제’, 내소사 고승 일오 스님의 ‘한국의 대선사 도를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의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의 ‘너의 마지막 숨까지 수행하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참사람 수행법’,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전현수 정신의학전문의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 수행’,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문화기자는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를 각각 강의한다.

참선지도자협회 측은 “이번 강좌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참선지도사와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문 명상지도사를 길러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강생 모집인원은 각 반별로 150명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28만원이며, 전체 수업일수 70%이상 출석과 봉사활동 20시간 이수가 졸업요건이다. 강의 장소는 서울 참불선원이다. (1577-3696)

윤호섭 기자



제119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金剛戒壇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www.beomeo.kr

입재
불기 2563년
4월 18일(음 3 · 14)
목요일 오전 10시

회향
불기 2563년
4월 19일(음 3 · 15)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동참금 3만원

죽음을 준비하는 집중수행 열린다

세첸코리아 4월 13일부터 '죽음 명상'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00년 전 티벳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담은 책이 작성됐다. 바로 〈티벳사자의 서〉다.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 삶의 새로운 시각을 주는 이 책을 통해 티벳불교는 새로운 수행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런 〈티벳 사자의 서〉에 정통한 티벳불교 수행자에게 배우는 죽음명상 집중수행의 장이 마련된다.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4월 13~14일, 4월 15~20일 약 1주일간 세계적인 죽음명상 전문가 '앤드류 홀로첵' 초청 죽음명상 수행을 개최한다.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행은 크게 1박 2일간의 '죽음준비 대중수행', 5박 6일간의 '꿈요가 집중수행'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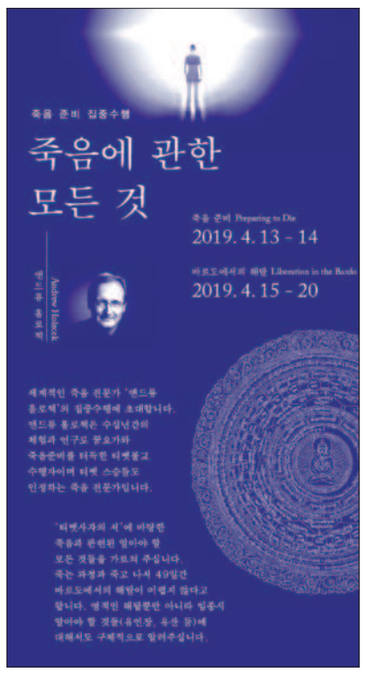
먼저 죽음준비 대중수행은 4월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죽음준비-해야할 모든 것부터 죽음의 구체적인 과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돕기, 임종 당시 알아둘 모든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수행

4월 13~14일 국제선센터
4월 15~20일 대구 도림사
죽음수행 안내 및 집중수행

美죽음명상 전문가 지도나서
티벳불교 죽음관 체험 기회
스님 및 세첸회원 참가특전

신청을 받는다.

'꿈요가, 집중수행'은 4월 15~20일 대구 도림사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잠과 꿈의 원리' '꿈요가-꿈에서 깨어나기' '잠요가-잠을 명상으로 탈바꿈' '임종 당시의 해탈' 등으로 구성



돼 있다.

세첸코리아에 따르면 꿈요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며 또 하나는 정광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죽는 과정과 잠드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기에 죽고 나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의 중음의 기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꿈요가를 하는 것이다. 즉 매일 잠에 들때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한다.

세첸코리아 측은 "죽는 과정과 죽고 나서 49일간의 해탈 과정에 대해 알고 영적인 해탈을 추구함과 동시에 종교적인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중수행 지도자로 나서는 '앤드류 홀로첵'은 미국의 영적 지도자로 수십 년간 '자각몽'과 같은 꿈요가와 죽음준비수행을 해온 티벳불교 수행자다. 현재 '고난과 고통' '죽음과 죽는 순간' '명상에서의 문제' 같은 주제로 다양한 수행토론의 장을 열고 있으며, 이러한 수행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있다. 저서로는 〈힘과 고통, 영적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기〉 〈죽음을 준비하기, 티벳불교로부터 얻는 실제적 조언과 영적지혜〉 〈꿈요가, 자각몽과 티벳 잠요가로 삶을 조명하기〉 등이 있다. 꿈요가 집중수행 38만원 세첸 회원 32만원, 스님 20만원이다. 참가문의 (010)4442-3960

조계종 복지재단 신규입사자 연수

6개 프로그램 진행, 복지 네트워크 구축 도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3월 21일, 1박 2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신규입사자 연수'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총 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종단과 재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기본 마인드를 함양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준의 대표(한국팔로워십센터)가 '리더를 만들어가는 팔로워들의 힘'을 주제로 신입직원들을 교육했다. 이 대표는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긍정적인 팔로워가 될 것을 강조했다.

남룡 스님(전등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은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교양강좌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불교교양도 전했다. 또 심목민MC는 참가자들의 친밀도를 높이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이어 갔다.

이튿날에는 마곡사 포교국장 경율 스님과 함께하는 마곡사 순례를 시작으로 박숙경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인권강의가 진행됐다. 박숙경 교수는 사회복지사라면 필수로 알아야하는 인권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놓치지 쉬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는 사회복지현장 경험이 아직 적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 외에는 잘 몰랐는데, 다양한 영역의 시설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명상지도사 1급 첫 고시에 46명 응시

87세 최고령 응시자, 군포교사 등 눈길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3일 불교명상지도사 1급 자격고시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1급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에는 2급 불교명상지도사 고시를 통과한 200명 중 46명이 응시했다.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는 필기와 실기 전형으로 나눠 진행되며 응시대상은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한다. 1년여 동안 2급 교육을 이수하고 2급 고시에 합격하면 대승과 상좌부, 금강승 가운데 한 가지를 전공으로 나머지를 부전공으로 또 다시 1년여 심화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1급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불교명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이게 1급 고시에 응시한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군법당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강선웅 씨는 "멀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도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려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했고 1급 과정에도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87세로 최고령 응시자인 김인수 씨는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명상지도사 과정을 공부했다"며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옥련선원 부설 옥련유치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서목 스님은 "명상지도사 1급은 단계에 맞는 명상수행법으로 불교의 대표적 명상법인 위파사나, 사마타, 간화선 등의 이론과 수행법을 교육해 다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며 "2급보다 질 높은 각도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대중과 어린이 법회 및 유치원 등에서 포교와 수행을 함께 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번에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1급 불교명상지도사들은 명상관련업에 취직하거나 1년여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전문지도사가 되면 독립적으로 명상센터를 개원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3일 불교명상지도사 1급 자격고시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1급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에는 2급 불교명상지도사 고시를 통과한 200명 중 46명이 응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일선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명상을 방편으로 전법 포교행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시대의 요청은 정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시켜주는 명상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명상지도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편과 함께 국가공인자격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불교계 내 네트워크에 힘쓸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일주문 35년 만에 환지본처

봉은사-석굴암 3월 28일 협약 체결

봉은사 일주문이 35년만에 환지본처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부장실에서 '봉은사 일주문 환지본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건립된 것으로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꼽힌다. 봉은사 중창불사 과정에서 1986년 양평 사나사로 이운, 2011년 오봉산 석굴암으로 자리를 옮겼다.

봉은사 일주문은 우진각 지붕형태로 일주문으로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띄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우진각 지붕은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일주문 건립 당시에는 다포계 팔각지붕 형태였지만 변경됐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도일 스님이 아니었다면 봉은사 일주문이 불사 중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잘 지켜주셨다. 본래 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스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봉은사 일주문이 제자리에 있어야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조건없이 이운키로 했다"며 "봉은사 중창불사가 원만히 마무리 돼 천년고찰로서 위상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을 중재한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봉은사 일주문이 제자리에 잡으면 전통사찰로서의 봉은사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사찰간의 협약을 통해 문화재 이운이 원만히 성사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는 이운 후 현재 진여문 앞에 일주문을 복원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평화의 랜드마크, 육지장사에 선다



세계 · 한반도 평화대탑 불사 'START'

평화 발원 쌍둥이 불탑

탑 높이 77m, 총면적 2천평 자랑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구성돼

2~7층, 세계명사 평화축원문 전시

지하에는 8만4천 탑전 등 들어서

1만평 부지 마련하며 25년간 준비

평화대탑불사 고불식

4월 26일 오후 6시 육지장사서 개최

관음의 소리 등 문화공연도 펼쳐져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대탑이 양주 육지장사에 건립된다.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는 4월 26일 오후 6시 도리산 육지장사 광장에서 평화대탑 불사 고불식을 개최한다. 평화대탑은 휴전선 인근지역인 양주 백석읍 육지장사 1만평 부지에 세워지는 쌍둥이 불탑이다.

탑을 세우는 것은 예로부터 사리를 봉안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한 시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크고 작은 많은 탑들이 우리나라에 조성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수용된 4세기 후반부터 여러 대탑을 세웠다. 고구려 영탑사 대탑을 필두로 고구려 청암리 팔각대탑, 백제 왕흥사 목탑, 미륵사지 목탑 등이 건설됐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 구층대탑을 통해 삼국통일의 원력을 모았으며, 고려시대에는 만복사 대탑, 조선시대 법주사 팔상전 등 1000여 대탑이 건설됐다.

지상에 명상원, 지하에 8만 4000탑전

이번 평화대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모와 방식이다. 대탑은 높이 77m에 총면적 2000평을 자랑하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시설로는 1층 평화전시관과 함께 2~7층에는 세계명사 1800명의 평화축원문이 전시된다. 8층에는 명상원이, 9층에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지하에는 8만 대장경을 상징하는 84000탑전과 전시장, 세미나홀, 교육장 등도 들어선다. 특히 지하의 84000탑전은 세계인들의 정성을 모아 시주발원해 공존 공생의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성 속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화합한다는 불교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두 개의 탑이 세워진다. 높은 탑은 양날개를 가진 듯 세계로 날아오르며 평화의 빛을 내뿜는다.

1 - 쌍탑은 좌우대칭으로 있으나 모든 시점에서 변화하는 하나의 탑으로 보이듯이 기획된다. 흩어지고 모이는 변화 속에 당당히 자리를 지키는 탑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2 - 구조물은 크게 탑동과 회랑동, 지하동으로 이뤄져 있다. 탑동은 철골구조 위 유리기와와 유리벽돌로 마감이 되며 회랑동은 전통한옥 목구조 위 전통기와로 마감된다. 지하동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 위 벽돌로 마감된다. 각 부분별로 다양한 자재를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유리로 無影, 평화빛 표현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팔각탑 형식에 21세기를 상징하기 위한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이 사용될 예정이다. 팔각탑은 평화의 상징으로 동서남북 등 8개 방향과 상하 2개 방향으로 시방세계를 표현한다.

또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을 사용해 무영탑을 표현한다. 무영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형식이 될 때 가능하다. 유리로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탑을 통해 평화의 빛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평화대탑을 설계한 선건축의 대가인 김개천 국민대 교수는 "좌우대칭의 쌍탑은 무영탑으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며 "산자락에 위치한 대지의 조건을 훼손시키기 보다는 전통방법으로 석단을 쌓아 점진적으로 하늘로 올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 영지에 비친 물밑의 하늘로 뻗은 모호하고 장대한 빛과 그림자의 흔적 같은 건축을 구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투명한 듯 빛을 품은 탑은 우뚝 솟아 있으나 가볍게 느껴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물에 비친 모습까지 더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함과 장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를 추진하는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불교가 전래 된지 1700년 동안 불교 문화의 전통을 슬기롭게 이어온 지혜로운 민족"이라며 "현재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남북 분단도 평화롭게 잘 타협해서 기필코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평화의 상징물로 이번 평화대탑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육지장사에 1만평 부지를 마련해 25년을 준비해왔다. 대탑 발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의지와 힘을 결집시켜 평화대업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대탑 고불식 후에는 관음의 소리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돈오무심곡' 공연 등이 펼쳐진다. 고불식 문의 (031)871-6574







창립정신 봉사로 회향한 스님들

화엄승가회 창립 4주년… 자비나눔 행사 펼쳐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화엄승가회에 봉사하는 모든 불사가 참된 봄꽃이며 향기입니다."

승가나눔공동체 화엄승가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자비나눔으로 창립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3월 22일 부산 서면 터존뷔페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화엄승가회는 대학생포교를 위해 부산대, 동아대, 해양대 등 5개 대학 불교 동아리에 각 100만원,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100만원, 부산불교교육대학 모교발전기금 100만원, 장애인후원단체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전달했다.

기념법회에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회장 자관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효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4년 동안 화엄승가회와 공덕탑을 쌓고 돌아보니 회원 스님들의 깊은 관심이 큰 후원이 됐다"며 "이웃의 고통을 보듬어 주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보살심이 싹트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참된 봄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승가회는 2015년 3월 창립됐다. 창립 후 네팔지진피해 구호금 기부, 자살방지 및 교통안전 캠페인, 자비의 연탄 나눔, 무료급식소 및 대학생 포교 지원 등 자비나눔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려노후 책임질 부처님 도량"

영천 포산승가원, 3월 24일 봉불 점안법회

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인 제주 약천사 부설 영천 포산승가원(원장 덕조)은 3월 24일 3층 법당에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은해사 소임 국장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지난해 8월 승가원을 개원하고 3층 법당에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셨다. 승가원장 덕조 스님의 원력과 불보살님의 가피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포산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서 포산당 혜인 대종사님의 고행에 보답하고 싶고 가르침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2018년 8월 21일 개원 준공식과 개원법회가 봉행되기까지 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16명의 불자를 호명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산승가원은 3층 건물로 1층 공양간 및 종무소, 2층 방사 11칸, 3층은 법당을 갖춘 복지시설이다. 세수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대상자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며, 제주 약천사 직할로 운영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민활동가 격려한 호남불교계

자비의 쌀 2,000㎏ 나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3월 27일 광주 광덕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명에게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자비의 쌀 나누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를 밝히는 활동가들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대표 혜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전 시민사회운동은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것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환경 변화가 중요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시민사회담체 활동가들이다. 이분들이 지금의 붓다"라며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뇨엔 "佛法은 국경 넘어 하나"

국내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 인재불사 후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 신뇨엔(眞如苑)이 한국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장학금, 봉축 행사지원금, 불우이웃돕기 등 지속적인 보살행으로 한국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뇨엔은 한·일 불교 간 새로운 교류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뇨엔은 장학금 전달로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학교를 직접 방문, 학생들을 만났다.

재단법인 신뇨엔 한국(대표 기시다 가츠오·이하 신뇨엔)은 3월 22일 부산 동명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앞서 아츠시 마츠나가 신뇨엔 총본부 국제부장과 다카하시 히로시 총본부 이사, 정경 국원은 동명대 학생들을 만나 신뇨엔 총본산 방문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지난 2월 14~17일 일본 열반절에 맞춰 15명의 동명대 학생들은 신뇨엔 총본산을 비롯해 도쿄 등 일본 주요도시를 방문했다. 여행 경비는 신뇨엔에서 후원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불교문화를 경험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색다른 일본 불교 모델을 경험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류지연(일본어학과) 학생은 "한국불교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며 "현대적 건물에 동시통역기 사용 등 앞서가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건물 구조와 배려가 세심했다"고 말했다.

이진솔(불교문화컨텐츠학과) 학생은 "개조인 이토 신죠의 흉상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다. 개조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음

한일불교 교류 견인차 역할

지속적인 보살행 펼쳐 눈길

장학금 총 3300만원 전달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기원"

전, 지관전 등 전각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신뇨엔은 호법선신(수호신)의 특징에 따라 전각이 특색 있게 꾸며져 있어 모습이 색달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방문 소감을 들으며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며 "다른 문화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달식에서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의 청년인재 양성 원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한일교류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 한국은 3월 22일 부산 동명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을 만나 신뇨엔 총본산 방문 소감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개조님은 청년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 및 교류는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한다"며 "방금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맑고 순순한 기운을 느꼈다. 교류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재가불자를 위한 신뇨엔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후원이다.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후원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신뇨엔은 이날 동명대에 이어 부산연제고 학생 11명을 신뇨엔 부산정사에 초청,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학생 11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이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다. 2014년 부산정사 건립 전 2012년부터 지역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등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뇨엔은 '진여원(眞如苑)'을 의미한다.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했으며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정사를 불사하고 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일본 진언종 본산인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했으며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다.

초기불전 전문가 양성 결실 맺다

선운사불학승가대, 졸업생 배출

새로 입학한 학인 스님은 4명

국내 유일의 초기불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운사 초기불전불학승가대학원(학장 환성)이 제7회 졸업식과 9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23일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2명의 스님이 졸업했으며, 4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하고 졸업생 중 5명의 스님은 연구과정에 입학해 계속 학업을 이어간다.



선운사 초기불전불학승가대학원은 3월 23일 졸업생을 배출하고, 신입 학인 스님 4명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장 환성 스님, 강주 재연 스님, 성륜 스님 등 대학원 교수사 스님들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해인사 원로 무관 스님, 선운사 부주지 대선 스님, 총무 심학 스님,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정읍 성불암 주지 상운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학인 스님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하는 스님들은 연구논문을 요약해 발표했으며 참석한 대중들은 졸업한 스님들에게 각자 준비한 졸업선물을 증정했다. 졸업식에서는 법인 스님과 남전 스님 등이 조계종 교육원장상과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학장 환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년 중 사중스님들과 재가신도들께 사는 모습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게 이 자리인데 때마다 의식에 부족한 점을 보여서 아쉽다"고 평한 뒤 "오늘 졸업하는 스님들은 법사로서 중생을 유익되게 담마를 널리 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격려사에서 "정체돼 가는 전통불교를 활성화하고, 기틀을 정립하는데 학인 스님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초기불교 교학과 체계화된 수행체계를 연구하고, 부처님 원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수행과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초석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도불교사상과 역사, 초기 경전 성립과 구성, 빠알리어 경율론, 위빠사나 수행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특강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법을 설하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2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중도정신을 함양하는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강좌를 진행한다.

이중 청정도론은 경전의 삼장 규율을 제외하면 상좌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헌이다. 이번 함께가요강의실에서는 김재성 교수의 불교인재원 강좌 중 청정도론 강의를 요약 발췌하였다.

정리=신성민 기자

주제 : 청정도론은 어떤 책인가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



김재성 교수는… 1988년 서울대학원 철학과 석사, 1995년 일본 동경대학원 인도철학불교학과 석사 졸업, 2000년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2012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선임연구원, 2013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불교의 이해〉〈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등을 펴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초기부파불교 전통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전해지고 있는 테라와다 또는 남방상좌부입니다. 그 연원을 붓다 시대의 불교에 두고 있고,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 시대 스리랑카로 전해진 이래 경율론 삼장을 온전히 갖춘 부파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부파가 테라와다입니다. 테라와다는 빠알리라는 중기 인도어의 하나로 삼장 및 주석문헌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전해지는 테라와다의 삼장과 주석서는 5세기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와서 정리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붓다고사는 스리랑카의 정통 테라와다 교단이 전해지는 마하위하라(大寺)에 와서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를 지어서 실력을 인정받은 후, 마하위하라에 전해지고 있는 스리랑카어 등의 지역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 주석문헌을 빠알리어로 번역하면서 편집했습니다.

> **'청정' 지극히 청정한 열반 의미**
> **청정도는 '청정에 이르는 길' 말해**
>
> **붓다가 도달한 열반이란 최고 경지**
> **이르는 방법 설명한 책이 '청정도론'**

청정도(淸淨道)의 '청정' 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경지인 지극히 청정한 열반(涅槃)을 말합니다. 열반을 의미하는 청정에 도(道)를 합해서 청정도가 되면 그 의미는 '청정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방편(方便)' 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붓다가 도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열반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신 단 하나의 이유이면서 불교의 목적인 궁극의 해탈로서의 '열반',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책의 내용은 "안의 엉킴도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고따마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 을 풀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붓다의 답인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계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상윳따니까야 '엉킴 경' S1:23)"라는 게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개됩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사찰에 가서 예불을 올릴 때 오분향례를 하는데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에서 계정혜 세 가지를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예불의식을 통해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정도론〉은 계정혜 삼학을 칠청정으로 확대하여 총 2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장은 계청정(戒淸淨)으로 구성되어 계와 두타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장부터 13장까지는 심청정(心淸淨)으로 삼매 또는 정(定)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14장부터 23장까지는 혜(慧)에 해당하는 다섯 단계 청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전체 분량으로 보면, 계를 다루는 내용이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따라서 삼매와 지혜가 각각 45% 정도로 배정돼 있습니다. 계정혜의 삼학을 칠청정의 순서로 닦아 나가면 궁극의 목적인 열반이라고 하는 청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청정도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은 계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계란 몸과 입으로 짓는 행위를 선하게 하는 의도, 마음부수(심소), 단속, 범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스스로 다짐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의 종류에는 재가자의 경우 오계, 팔계, 구계(자애 + 팔계) 등이 있고, 출가자의 경우 사미계, 사미니계, 식카마나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습니다.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는 것은 일단 '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에는 여섯 가지 이익이 있는데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고 △큰 재물과 훌륭한 명성을 얻으며 △두려움이나 창피함 없이 모임에 들어가고 △선처에 태어나며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번뇌의 소멸 성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청정은 수다원에서 이뤄집니다. 수다원이 되었을 때 사불괴정(불법승계에 대한 확신)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는 소욕지족의 생활규범을 말하는 두타행이 제시됩니다. 13가지 두타행은 의식주와 정진과 관련된 수행으로 △분소의 △삼의 수용 △탁발 음식 수용 △차례대로 탁발 △한 자리에서만 먹음 △발우 '한 개' 의 탁발음식만 먹음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음 △숲에 머묾 △나무 아래 머묾 △노천에 머묾 △공동묘지에 머묾 △배정된 대로 머묾 △눕지 않음입니다.

비구는 13가지 모두 지키는 수행을 할 수 있고, 사미는 1, 3~13의 12가지, 비구니는 1~6, 12~13의 8가지, 식카마나와 사미니는 1, 3~6, 12~13의 7가지를 지키며, 재가신자는 5~6의 2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재가자는 음식을 절제하는 두타행을 실천합니다.

3장부터 13장에서는 마음의 청정인 심청정으로 삼매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善心一境性)' 이라고 정의합니다. 불교의 삼매는 유익한 심리작용으로 삼매에 들어있을 때 불선근(不善根 탐진치)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삼매를 닦을 때는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명상주제를 주는 스승(선우)이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기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오로지(타인의)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있는 이가 선우이라고 하면서 40가지 삼매 주제 가운에 자신의 기질에 맞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40가지 명상주제는 열 가지 까시나(十遍), 열 가지 부정(十不淨), 열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十隨念),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四梵住), 네 가지 무색의 경지(四無色), 한 가지 인식(食厭想), 한 가지 분석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를 닦으면 다섯 가지 이로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①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現法樂住) ②심신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 지혜를 얻게 됩니다. ③5가지 신통력(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을 얻게 됩니다. ④색계정과 무색계정의 힘으로 색계 또는 무색계천의 천인(天人)으로 태어납니다. ⑤무색계정까지 이룬 자는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통찰지의 힘으로 멸진정(滅盡定)에 도달합니다.

마음집중(삼매)수행의 다섯 가지 공덕의 두 번째로 심신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섯 가지 법의 범주인 온(蘊) 처(處) 계(界) 근(根) 제(諦) 연기(緣起)를 토양으로 성숙됩니다. 지혜의 몸체는 지혜가 향상되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말하며 〈청정도론〉 18장에서 22장까지 해설돼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23장은 지혜에 대한 4가지 이로움에 대해 설명한다. 지혜를 통해 온갖 번뇌를 끊고 성인의 깨달음의 결실(果定)에 도달하며 사무색계정을 닦은 수행자는 지혜의 힘으로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다의 가르침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의 깨달음의 결실에 도달합니다. 북방 설일체유부의 구사론과 비견되며, 초기불교 수행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자기와의 대화이자 수행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⑥ '예술로서의 걷기'와 봉정암 가는 길

곤함을 달래며 일어난 한밤중의 산사는 어둡고 추웠다. 시계는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톱 같은 달이 검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극락보전 앞을 지나칠 때는 잠도 제대로 깨지 못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지금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다시 해거름에 이를 때까지 봉정암에 가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도반의 소개로 계획을 잡긴 했으나 며칠간 여러 바쁜 약속들 때문에 백담사 가는 전날 밤까지도 밀린 일을 처리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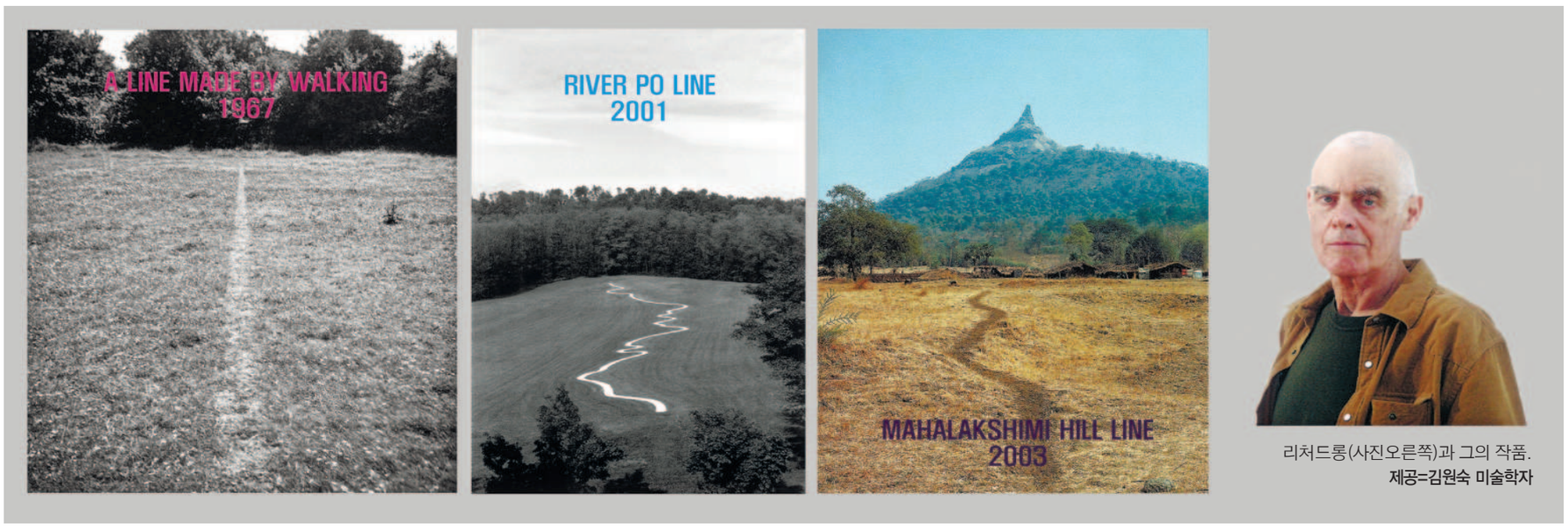
성철 큰스님은 자신을 친견하러 오는 불자들에게 삼천배를 권했다.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부처님에게 삼천배를 하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선잠을 깨지 못하고 봉정암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만나러 가는 짧지 않은 순례길에 나서는 내 마음에는 문득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다. 이런저런 바쁜 일을 구실로 평소에 가벼운 운동조차 하지 않았던 내게는 이번 일정이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백담사에서 봉정암을 향해서 가는 길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이들에게는 예쁘고 아름다운 길이다. 겨울이 찾아온 산의 나무와 숲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맑은 공기와 유려하고 고요한 산자락과 계곡을 보면서 걷는 길은 마음을 신선하게 한다. 간혹 새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적막을 깨울 뿐이다.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내딛으며 가는 삼보일배의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와는 달리 기도와 서원의 길이다. 가장 낮은 자세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 걷는 세 걸음은 우선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천지를 보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생을 보는 깨달음의 단계라고 한다. 그 새벽, 인적 끊긴 산길에 삼보일배를 하며 가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도대체 이 자발적 고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철학자, 시인 그리고 수행자들은 걸었다. 프랑스 샤를빌에 가면 '바람구두를 신은 인간'로 불렸던 시인 아르튀르 랭보의 걷는 동상을 만날 수 있으며,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니체도 스위스 동부 알프스 산맥의 실스마리아를 하루 열 시간이나 걷고 또 걸으며 짜라투스트라와 영원회귀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헤겔이 걸었던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의 길, 칸트가 날마다 산책했다는 쾨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의 길, 키에르케고르가 걸었던 코펜하겐의 철학자의 길, 그리고 니시다 기타로가 걸었던 교토의 '철학의 길' 까지 세계 곳곳에는 철학자들이 걸었던 길이 아직 남아있다.



리처드롱(사진오른쪽)과 그의 작품.
제공=김원숙 미술학자

반복적인 걷기로 남기는 흔적
자기와의 대화와도 맞닿아
고요의 숨결 느끼는 수행현장

현대 미술의 한 장르인 대지 미술(Land Art) 또는 어스 워크(Earth Work)가 있다. 이 미술장르는 1960년대 말부터 영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 성행했던 미술의 한 경향으로, 반문명적인 문화현상과 더불어 '물질'로서의 예술에 저항하며 자연과의 유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대지미술가들은 푸른 잔디가 덮인 나직한 들판과 구릉지, 바위가 드문드문 놓인 황무지, 사막, 절벽, 숲 등을 화가의 캔버스인 것처럼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작업을 한다. 대지 미술가들에게 '박물관은 인류 문명의 납골당'에 다름 아니다. 대지 예술가들은 사각형의 하얀 공간(White Cube)에 감금된 미술관의 공간을 거부하고 자연과 풍경 그 자체를 붓과 물감으로 삼아 자신들의 예술 정신을 펼치기를 원했다.

대지 미술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작가 중에 리차드 롱(Richard Long, 1945-)이 있다. 그는 '걷기'를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 하여 작품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하라 사막과 리오그란데, 프랑스와 스페인의 해안, 볼리비아와 페루, 알프스 산맥과 안데스 산맥까지 그리고 일본의 후지산과 인도의 마하락슈미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걸었다.

한 인터뷰에서 롱은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선사시대 동굴벽화부터 20세기 풍경사진까지 예술가에 의해 항상 기록되어 왔다. 나도 자연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싶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잔디와 물 같은 자연물을 사용하여 밖에서 작업하였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걷기에 관한 작품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의 의도는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역시 새로운 걷는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술로서 걷는 것이다."(벤 터브넬 엮음, 〈리차드 롱의 진술과 인터뷰〉, 런던, 2007년)

'걸음으로 생긴 선 (A line made by walking)'은 한 시골 마을의 잔디밭 위를 리처드 롱이 수없이 걸어서 생긴 자취를 작품으로 한 것이다. 1967년 6월, 롱은 런던 워털루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동쪽으로 약 20마일 즈음 떨어진 윌트셔 들판 근처에 내렸다. 풀이 무성한 이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며 걸었다. 그러자 반복적인 걷기로 인해 들판의 풀들이 한 쪽으로 눕게 되고 일시적인 라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난 후 롱은 이 라인을 햇빛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기록 사진 아래 여백에 직접 붉은색 연필로 'A LINE MADE BY WALKING'이라고 적어 넣었다. 현재 이 사진 작품은 런던 테이트 갤러리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롱의 '걷기' 작업에는 시간, 거리, 지리, 측정이라는 컨셉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설치하기, 텍스트 제작, 사진 찍기, 드로잉하기로 구성된다. 실제로 그는 걸으면서 땅 위에 지표를 세우거나 꽃을 따거나 돌맹이나 나무조각 등을 재배열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기념비적 작업을 감행한 로버트 스미드슨이나 마이클 헤이저 등 미국의 대지미술가들에 비하면, 롱의 작업에서 그 풍경 개입의 정도는 지극히 미미하고 일시적이며 소박하다. 그는 풍경에 가능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기본행위인 두 발로 걷기를 통해 자연에 잠시 머물러 곧 사라질 흔적만을 남기고, 사진으로 담을 뿐이다.

리차드 롱은 항상 스스로를 조각가로 소개하며, 자신의 '걷기' 작업을 조각이라고 주장한다. 원래 조각은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3차원의 공간 속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로서, 강하고 견고한 양감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기존조각과는 달리 롱의 걷기 작업은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거부하고,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제작태도와 고정된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형예술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융화된 풍경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롱에게 걷기는 문화적인 다양성의 표현이자, 다른 문화들끼리의 연결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행위이다. 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차원의 이해이며 자신의 고유 위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만들어 낸다.

롱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걷기는 대지 위에 하나의 선을 남긴다. 롱의 사진작품에는 어떠한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걷기로 만들어진 선은 육체적 현전과 신체적 행위의 흔적이다. 이 선은 자연의 과정인 자기 재생 및 자기 소멸을 포함한 시적 은유인 '길'로서 이해될 수 있다. 걸으면서 생긴 자취가 길인데, 이것이 리처드 롱에게는 바로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나, 정작 그의 예술은 남겨진 사진작업보다는 걷는 행위를 통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그 자체다. 사실상 리처드 롱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아주 특별한 차원으로 연결되는 고독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프로세스아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람은 길을 걸어간다. 길이 없다면 풀숲을 헤쳐서 가고 물을 건너서 간다. 한 사람이 걸어간 흔적은 조그만 오솔길이 되고, 그 흔적은 또 다른 사람의 발길을 인도해서 마침내 큰 길이 되기도 한다. 새는 날개를 저어 허공을 날아가지만 사람은 땅 위를 걸어간다. 날갯 짓이 허공에 자취를 남길리는 없지만, 사람이 걸어간 곳은 흔적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길에는 그 곳을 걸어간 이들의 사연이 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전에 걸어간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 피와 땀을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기쁨과 반가움을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서 골짜기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는 시간, 봉정암 가는 길에는 행인들이 제법 많아졌다. 사람들이 해탈고개 지나 '깔딱 고개'라고 하는 그 숨이 턱에 차오르는 가파른 돌벼랑을 올라설 무렵, 산봉우리들이 온통 석양빛에 스며 곱게 물들 즈음 그 끝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 서 있었다.

봉정암 순례길은 옛 스승이 이르신 '입 안의 말이 적고, 마음에 생각이 적고, 배 속에 밥이 적어야 하는' 수행길이다.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나아가는 이 힘든 여정은 길 끝에 있을 그 무엇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수행이며 작은 두타행(頭陀行)이다.

리차드 롱은 걷는다는 자신의 예술행위를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며 삶을 통과하는 것'이라 했던가. 가도 가도 절벽이었던 삶. 태연히 죽기도 어렵고 태연히 살기도 어려운, 삶과 죽음 사이에서 태연자약하기가 좀체 쉽지 않은 숙제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다. 살다가 길을 잃어 막막하고 슬플 때, 참회와 기도의 길에서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마주하고 사색하며 저마다의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한다.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는 일은 하나의 수행이고 자기와의 대화이며 명상이다. 긴 치열함이 있는 뒤 맑은 고요의 숨결로 감사히 엎드리는 순간,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임을! 그 길이 다하는 지점에서 무언가를 만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깨달음이란 푸른 새벽과 낮 그리고 황혼이 내리는 가파른 순례길 내내 한 발 한발 내딛는 매 순간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캄캄한 돌 길 위에도 엎드려 절할 자리는 있었다.

걷는다는 것은 길 위에 있다는 의미이고, 길은 생명의 몸부림이 지나간 흔적이다. 걷는다는 것은 덧없음의 고통을 벗어나 고즈넉한 기적을 만나는 일이고, 세상의 모든 길은 본질적으로 깊은 내면으로 이어진다. 눈물 나는 어느 날, 봉정암으로의 아득한 그 길에 또 다시 서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가도 가도 본래 자리요.
이르고 이르러도 출발한 그 자리이다.
행행본처(行行本處) 지지발처(至至發處)
의상대사 〈법성게〉 중에서

〈미술학자〉



(사)창원수산자비선원 야천당 수산(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제6회 불교인 단합대회 및 제15회 시민화합큰잔치



초청스님
• 태종사 도성 큰스님(태종사조실)
• 석가사 조실 가산큰스님(대각교단총재)
• 서래암 월인 종정스님(실서래암조실)실 외100여분의 큰스님 동참

초청가수
• 김상희(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외), 현당 (정 하나 준것이 외)
• 법만스님(불교정중종 총무원장 법만사 주지, 불자가수)
• 한보민(빈손외 메들리), 신유성(내사랑 천사 외)

초청공연
• 나눔문화 예술단 - 「난타, 부채춤」, 조희자 - 「춤-어우동」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오후 1시 ~ 오후 4시
장 소 | KBS창원홀
후 원 | 대한노인회 창원지회
문 의 | 055) 277-7626, 010-6586-3088
협 찬 | • 자비요양병원 문의 : 055)288-6300 • 명곡한의원 / 자비마을 (요양시설)

제6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대 회 사
야천당수산(법상)스님


격 려 사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홍창오


법 어
도성큰스님


법 문
가산큰스님


축 사
월인큰스님

제15회 시민화합큰잔치


특별초대가수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특별초대가수
현당
(정하나 준것이 외)


불자가수
법만스님


한보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가수)


신유성
(내사랑 천사 외)



특별공연1 :
나눔문화 예술단
-「난타, 부채춤」


특별공연2 :
조희자
-「춤-어우동」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20	20'	• 식전행사 - 창원시노인지회 노인대학 학장 조희자-부채춤 김인수 외 경기민요	사회자
13:20~14:00 (제6회 불교인 단합대회)	40'	• 개 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대회사(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격려사(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 법 어(도성스님) • 법 문(가산스님) • 축 사(월인스님)	사회자
14:00~16:00 (제15회 시민화합큰잔치)	120'	• 특별초대가수 - 김상희, 현당 • 불자가수 초청무대 - 법만스님 • 축하무대 - 한보민, 신유성 • 초청공연 - 나눔문화 예술단 - 「난타, 부채춤」	

• 후원계좌 :
농 협 351-0613-3149-83 예금주 : 사)수산자비선원
경남은행 581-22-0325609 예금주 : 수산자비선원 정봉수

개도 불성이, 짐승 목숨 소중히…

〈佛性〉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⑥ 남전참묘(南泉斬猫)와 불문마(不問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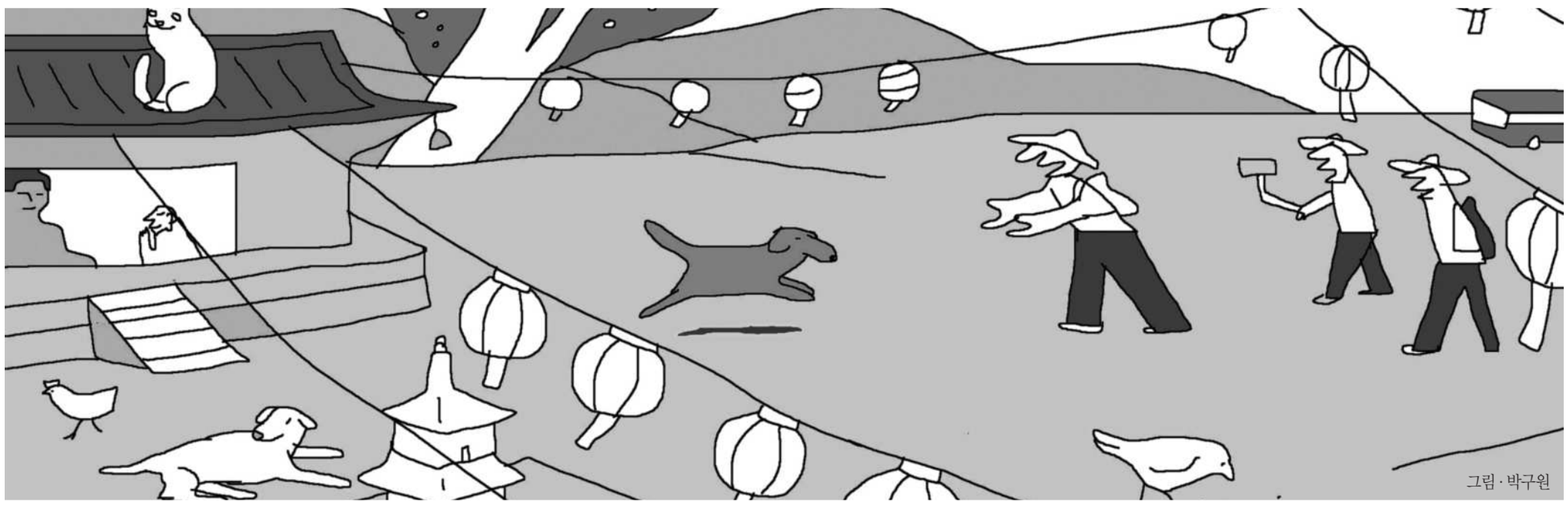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남해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유기동물을 입양하라는 공고가 자주 눈에 띈다. 누군가 버렸거나 떠도는 동물을 군에서 포획해 보호하면서 애완동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입양해 기르라는 뜻이다. 매주 거르지도 않고 공고가 나는 것을 보면 동물이 꽤 많이 버려지거나 방랑하는 모양이다.

다 알다시피 이렇게 잡힌 동물들은 일정 기간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킨다. 얼마 전 어떤 동물보호협회 대표가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는 동물들을 대량 살육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물을 도구로 생각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인간의 더러운 생리가 빚은 비극이다. 어쨌거나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는 다르지만 많은 동물들이 애꿎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조물주가 동물을 살육하거나 안락사해도 좋다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었을까? 공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 한 마리 분양받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동물로 포화 상태다.

나도 남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개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한방에서 놀고 잔다. 딸아이들이 워낙 동물을 좋아해, 개는 길에서 떠도는 놈(암컷이다!)을 데려오더니, 작년 초에는 갓 낳은 수컷 고양이 새끼를 분양받아 데려왔다. 견묘지간(犬猫之間)이란 말은 없으니 둘이 원래 사이는 나쁘진 않은가 본데, 그래도 같이 기를 때는 싸우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처음엔 데면데면하더니 이제 일 년이 지나 얼굴을 익혔는지, 으르렁거릴 때도 있지만 큰 다툼은 없다. 동물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인간은 끝없이 서로를 괴롭히니,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만물실유불성(萬物悉有佛性)을 교리로 삼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살생을 금하고 있고, 수행자는 아예 육식조차 못하도록 못 박아 두었다. 미물이라도 해치지 않고자 스님들이 주장자를 든 이유가 땅에 사는 벌레가 인기척을 느끼고 피하라는 뜻이라니,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데 이런 배려를 하는 종교는 많지 않을 듯하다. 부처님의 생명 사상이 부디 빨리 세상에 퍼지기만 빌 뿐이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 그것도 권력층 중심의 지배 사상이 확고한 유교에서 동물에 대한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완동물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했으니, 공자가 살던 고대 중국에도 애완동물이 없진 않았을 터인데, 〈논어〉에 개(犬)는 등장하지만 견마(犬馬)라 하여 가축의 개념이 강하다. 고양이(猫)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인(仁)을 강조했던 공자가 동물에 대해 무심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로 형상화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고양이도 살리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꿈꾸는가?

비유담이 넘쳐나는 불교 경전에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우화(寓話)가 없진 않겠지만, 우선 손에 집히는 대로 화두집 〈벽암록(碧巖錄)〉을 펼쳐 들었다. 모두 100칙의 공안(公案)이 실린 이 책을 일별만 해도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브라가 나오는가 하면(제22칙, 설봉의 코브라(雪峰鼈鼻蛇)) 쇠붙이소(鐵牛)도 나오고(제38칙, 풍혈이 설법하기를 "조사의 불심인은 쇠붙이소와 같다(風穴祖師心印)), 금빛 물고기(金鱗, 제49칙)와 들오리(野鴨子, 제53칙), 고라니(麈, 제81칙), 호랑이(虎, 제제85칙), 무소(犀子, 제91칙) 등이 당장 눈에 띈다.

그러나 〈벽암록〉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압권은 역시 고양이다. 제63칙에 나오는 남천 선사가 새끼 고양이를 베어버린 공안이다. 벌레도 죽이지 말라는데 대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베어 버렸다니, 분위기도 섬뜩하지만 무슨 망발인가 싶을 만큼 괴이한 사건이다. 본문을 그대로 보자.

남전산에서 어느 날 양당의 중들이 새끼 고양이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 화상이 보다 못해 그 새끼 고양이를 번쩍 집어 들고는 "누구든 한 마디 해보라. 그러면 살려 주겠다(만 그렇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중이 없었다. 남전 화상은 새끼 고양이를 두 토막으로 잘라 버리고 말았다.(擧 南泉一日 東西兩堂 爭猫兒 南泉見 遂提起云 道得卽不斬 衆無對 泉 斬猫兒爲兩段)(번역과 원문은 안동림 선생의 역주본 〈벽암록〉(현암사, 2008)을 인용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 된 번역이라 생각한다.)

절을 다니다 보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곳이 의외로 많다. 깊은 산중에 있으니 무료하기도 하겠지만, 산중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편도 있을 것이다. 반갑게 꼬리 치며 다가오는 개나 마루에서 햇볕을 쬐며 느긋하게 잠이 든 고양이를 보면 깨달은 자의 다른 모습을 보는 듯해 기분이 야릇해진다.

아직 수양이 깊지 않은 스님들이 새끼 고양이가 귀여워 서로 자기 방에 두겠다며 다툰 모양이다. 집착을 털지 못한 선지식의 망동에 눈살이 찌푸려진 남전 화상이 한 마디 말만 제대로 하면 살려주겠다면서 스님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고, 새끼 고양이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남전은 무슨 말을 기대했던 것일까? "제발 고양이를 살려 주세요."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뻔한 뇌까림을 들을 작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그 말을 찾아보라는 것이 이 화두의 핵심이겠다. 그런데 다음 64칙에 해답이 나와 좀 싱겁다.

불교는 만물실유불성 근간
마음수행의 방편으로도 활용
짐승목숨 · 사람목숨 같아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침 출타중이어서 그 새끼 고양이 소동 때 없었던 조주가 저녁에 돌아오자) 남전 화상이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조주에게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다.

곧 조주는 두 말 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 버렸다. 남전 화상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새끼 고양이를 구했으련만" 하고 뇌까렸다.(擧 南泉 復擧前話 問趙州 州 便脫草鞋 於頭上戴出 南泉云 子若在 恰救得猫兒)

해답이라지만 이 또한 해괴하기 짝이 없다.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것이 어떻게 대답이 되는가? 더구나 이것은 남전이 요구한 '한 마디 말'도 아니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다투던 스님들은 고양이에게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말'에도 집착했다. 무슨 말을 해야 고양이를 구할까 고민하면서 그 '말'을 찾았을 것이다.

생명을 구할 말이니 쉽게 입이 떨어질 리 없다. 내심 '설마 죽이겠어.' 하는 안이한 요행심도 있었겠다. 말을 하라고 하니, 말에 집착해 오도 가도 못하는 꼴에 철퇴를 내려버렸다.

스님들이 얼마나 경악했겠는가? 그래도 깨닫지는 못했다.

조주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선기(禪機)라면 따를 자 없던 조주였다. 말 따위에 집착하는 조주가 아니었다. 사실 짚신을 머리에 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난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설사 조주가 남전에게 침을 뱉거나 나아가 뺨을 철썩 보기 좋게 때렸더라도 남전의 대답은 같았을 것이다.

남전이 든 칼은 활인검(活人劍)이었으니, 조주의 대답에서 죽은 고양이는 다시 살아났을 게 분명하다. 아니면 아예 집착에 눈이 먼 스님들이 허깨비를 본 것일 수도 있다. 고양이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만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애완묘(愛玩猫)가 보여주었다. 새끼 고양이여, 거룩하고 거룩할진저!

마구간에 불이 나면 누가 위험한가?

동물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던 공자였지만, 동물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하나 〈논어〉에 나온다. 10편 향당편에 있다. 역시 본문을 읽어보자.

마구간에 불이 났다. 스승께서 조정에서 퇴근하고 오시더니 "사람이 다쳤느냐?"고만 물어보실 뿐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고대 중국에서 말은 소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이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하고, 말은 전쟁이나 위엄을 과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직에 있는 이라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는 게 기본이었다. 공자도 한때 조정에서 관직을 한 몸이라 집에서 말을 길렀던 모양이다.(아니면 남의 집 마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구간에 불이 났으니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귀가한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이 다쳤는가만 묻고 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런데 마구간은 말이 사는 곳이 아닌가? 거기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사람의 안위만 걱정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똑똑하기로 한 가닥 했던 주자(朱子)는 이 구절에 대해 "인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치에 마땅하다고 해설했다. 참으로 얄밉고 비정한 소리다.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윤휴(尹鑴, 1617-1680)는 꽤나 진보적인 색채를 띤 유학자였다. 〈논어〉의 이 구절과 주자의 해설을 접한 그는 아무래도 뭔가가 찝찝했다. 사람도 소중하지만 말도 생명인데, 어찌 묻지 조차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논어〉 원문의 구두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傷人乎 / 不問馬"로 끊지 않고 "傷人乎不 / 問馬"로 끊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끊으면 뜻이 "사람이 다쳤는지 아닌지 묻고 난 다음에 말에 대해 물으셨다"가 된다. 이런 해석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공자답다.

윤휴는 나중에 역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유배를 갔다 처형당했는데, 공자보다 주자를 맹신했던 조선시대의 답답한 유학자들은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며 맹비난했다고 한다. 말만도 못한 인간이 예나 제나 많은가 보다.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짐승의 목숨도 고귀하다. 짐승의 목숨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인간은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본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청소가 왜 일어났겠는가? 오늘부터라도 지나가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가 보이면 먹이라도 좀 주고 그래야겠다.

〈소설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직인 개인(改印) 공고

총무원장 직무대행 새 직인

편백운 전 총무원장 스님은 2019년 3월 20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제136회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불신임이 확정되어 총무원장의 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직인과 기타 편백운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직인은 2019년 3월 20일 14시 부로 무효입니다.

불기 2563(2019)년 3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전 성 오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 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과 힐링
•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업장소멸
•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체험-감동의 파노라마
• 관람한 모든 불자들이 극찬하는 승군의 전승무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템플라이프(유료) 선무도 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공연내용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 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선무도 공연 오후 3시(무료 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전액 무료(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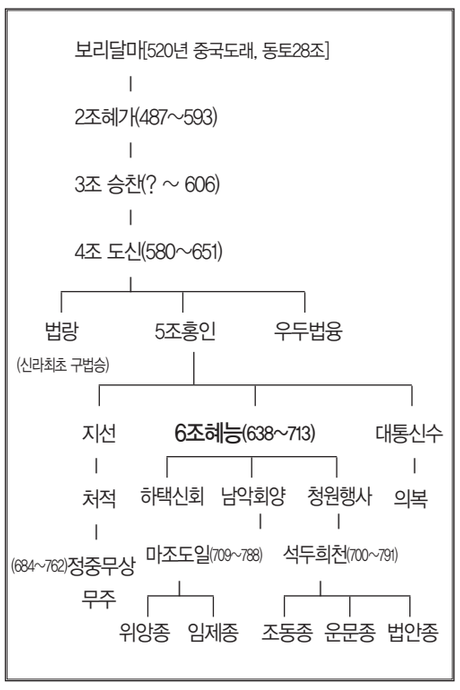
선무도 수련원 | 서울 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 본원 010-2554-8100 | 울산 지원 052-911-1690 | 대구수련원 010-8880-1210 | 하동 용화사 055-882-1689 | 해외 15개국 선무도 지원(센타)

혜능 '돈오 법문'으로 五家 열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⑥ 육조 혜능(하)





중국 광동성 소관 남화사 육조전에 있는 혜능 선사의 진신상. 본래는 영조탑에 봉안돼 있었으나 도난이 염려돼 육조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범사서 설한 법이 '육조단경'
713년 中광동성 국은사서 입적
혜능 아래로 5개 종파 형성돼
자성청정 기반한 돈오를 강조
사상 핵심은 '무념 · 무상 · 무주'

혜능의 열반 및 선풍

선(禪)과 관련된 주제를 원고 작성할 때면 늘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머릿 속을 맴돈다. 구한말 금강산 마하연 아래 목욕탕이 있었다. 이 목욕탕의 주인은 불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스님들이 오면, 목욕비를 받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는데, 주인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몇 마디 덧붙였다.

"주인장! 고맙소이다. 육신을 깨끗하게 목욕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육신은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마음은 어떻게 씻으시겠습니까?"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돌아가면서 크게 반성하고, 열심히 정진했다고 한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몇 차례 세수하면서도 이 주인장의 말을 생각한다. 마음의 번뇌를 어떻게 씻길 것인가? 혜능의 가르침으로 보면, 본래성불된 존재이니, 털어버릴 것조차 없음이요, 어떤 언어로도 이름붙일 수 없는 일물이다.

혜능이 광동성(廣東省) 소관(韶關) 남화사(南華寺)에 머물며 제자들을 제접하였다. 어느 해, 소주(韶州) 자사(刺史) 위거(韋璩)라는 사람이 그 관료들과 함께 찾아와 대범사(大梵寺)에서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

당시 혜능이 대범사 강당에서 법을 설할 때 자사 및 관료 30여 명, 유학자 30여 명, 스님들과 일반 재가인 모두 합쳐 1천여 명이 모였다. 이때 법을 설한 내용이 바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이다. 〈단경〉을 설한 장소인 대범사는 현재 대감사(大鑑寺)라고 한다. 현 대감사라고 사찰 이름이 바뀐 것은 혜능의 시호인 대감(大鑑)에서 딴 것이다.

소관 기차역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매우 작은 사찰이다. 필자는 이곳을 방문하고,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은 때가 677년으로, 그는 조계로 와서 36년간이나 선풍을 전개했고,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713년 7월 8일 혜능이 열반에 들려고 하자, 문인들이 모였다. 대중이 슬피 울면서 좀 더 머물기를 청하자, 혜능이 말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도 열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옴이 있었으니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이 몸도 반드시 가야 한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잎사귀가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다시 올 날을 말할 수 없으리.(落葉歸根 來時無口)"

'낙엽'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낙엽'이라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꽃잎'이 떨어졌다고 하여 꽃이 진 것이 아니다. '꽃잎'은 현상적인 존재로 피었다가 지는 것이지만 그 꽃잎을 떠받치고 있는 참된 실재(꽃)는 영원히 존재한다. 생멸하는 현상 속에 변치 않는 실재, 그 실재를 실상(實相)이라고 한다. 어느 법조인이 불명예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落葉歸根)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혜능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법조인이 말한 걸까? 궁금하다.

혜능이 상주했던 남화사(南華寺)는 광동성 소관(韶關)에 위치한다. 소관시 곡강구(曲江區) 성동(城東)에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계북안(曹溪北岸), 보림산록(寶林山麓)은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곳이다. 남화사는 중국불교의 저명한 사찰이기도 하지만 중국 선종의 '조정(祖庭) 사찰'이다.

이 사찰은 위진남북조 시대(502년)때 창건되었다. 인도 고승 지략삼장(智葯三藏)이 처음으로 이곳에 머물렀는데, 사찰을 창건해 황제가 '보림사(寶林寺)'라는 사명을 하사했다.

선사는 원래 713년 광동성 신흥현 국은사에서 입멸했다. 얼마 후 법신을 남화사로 옮겨온 것이다. 제자들이 6조의 법신에 옻칠을 하고 향을 발라 관에 넣어 영구보존했다. 이후 원적 29년 후인 742년에 영조탑을 건립하고 진신상(眞身像)을 봉안했다. 혜능의 진신상을 영조탑(靈照塔)안에 모셔놓았는데, 혹여 훔쳐갈 것을 염려해 '육조전' 안으로 옮긴 것이다. 진신상 앞에 '6조대감(六祖大鑑) 진공보각원명광조(眞空寶覺圓明光照) 선사'라는 위패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혜능과 관련해 재미난 이야기가 전한다. 쌍계사 금당(金堂)에 혜능의 정상(頂相), 즉 두골이 모셔져 있다는 것이다. 722년 두 승려가 당나라에서 귀국하면서 걸망 속에 혜능의 정상을 모시고와서 쌍계사 금당 육조정상탑에 봉안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쌍계사지(雙溪寺志)〉'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로 전한다.

혜능의 선풍 및 선종사적 위치

혜능의 선종사적 위치는 이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혜능에 의해 열린 돈오(頓悟) 법문으로부터 위앙종 · 임제종 · 조동종 · 법안종 · 운문종 등 5가가 형성되었다. 이를 일컬어 '일화오엽(一花五葉)'이라 한다. 즉 '한 꽃에서 다섯 봉우리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혜능의 사상에서 발단되어 5가가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상 및 선문헌이 크게 발전되었다.

둘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강조하였다. 혜능이 법을 펼쳤던 남화사에 가면, 혜능 사리탑(靈照塔)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함이니, 단지 그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 바로 성불이니라.(提自性本來淸淨 但用此心直了成佛)" 이 글은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이다. 필자가 10여 년 전 사리탑에 새겨진 이 문구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하나만 더 보기로 하자. "부처는 자성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니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자성을 모르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곧 부처이다." 혜능은 본 성품이 부처이므로 이 성품을 떠나 부처는 있을 수 없다(本性是佛 離性無別佛)고 하였다. 곧 청정한 자성일 때, 곧 그 자리가 부처이다. 본각(本覺) · 본래성불(本來成佛)에 입각한 사상이다.

셋째, 무념(無念) · 무상(無相) · 무주(無住) 사상을 강조하였다. 혜능의 선사상이 담긴 〈육조단경〉은 북종 신수계를 의식하고, 남종선 자체의 입장을 확립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남종선의 독립선언이란 바로 돈오견성(頓悟見性)과 〈금강경〉에 기초하여 반야삼매(般若三昧)를 설하며, 일체법이 무념(無念) · 무상(無相) · 무주(無住)임을 밝히고 있다.

〈단경〉에서 "나의 이 법문은 고래로부터 모두 무념(無念)을 세워서 핵심(宗)으로 삼고, 무상(無相)을 체(體)로 하며,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무상은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난 것이요, 무념이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읜 것이며, 무주란 사람의 본성이 저 세간에 있어서 선과 악, 미추(美醜)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걸림이 없으며, 원수거나 친하거나 간에 서로 말로 다투거나 공격하며 속이는 등 다툼이 있을 때 공(空)으로 삼아서 앙갚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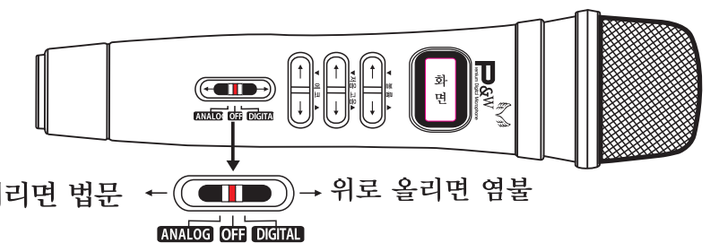
넷째, 앞의 세 번째와 관련이 깊은데, 혜능선은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자성이 능히 모든 법을 포함하며,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가고 옴에 자유로워 마음자리에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般若)"라고 하였다. 또한 "반야는 지혜인데 일체 처소와 일체 시중에 생각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로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한다. 선사는 반야는 부처를 여의지 않는 자성으로부터 나오며 자성이 청정한 본성만이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유심정토(唯心淨土) 사상이다. 〈단경〉에서 보면 "범부들이 자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 몸 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이니 서방이니 하면서 찾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진심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동방이 바로 청정한 곳이 되고, 청정도량인 사찰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 서방일지라도 혼탁한 지옥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혜능의 사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자성청정을 기반으로 한 돈오가 강조되어 있다. △〈금강경〉에 기초해 반야바라밀을 설하고 있는데, 반야삼매(般若三昧)는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들 사상의 핵심은 무념 · 무상 · 무주를 드러내고 있다. △선정과 반야의 일체를 강조한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톱시스템이란? : 한 번에 최고의 소리 시스템



오직 앰프 내장 마이크 하나만으로 마이크 2개 기능 동시 사용

앰프 내장 마이크 자체에서 마이크 2개 기능과 음량, 음질, 음색, 에코 조절 기능이 있어 법당 현장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가며 설법, 염불을 함으로 수 천번 염불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생 보물

▣ 현장 방문시 마이크만 가지고 일초에 구슬픈 소리, 장엄한 소리, 설법,소리 크게 작게 등 다양성을 보여 드림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1주년 기념
제13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예향의 고장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염송의 저자이시며 고려후기 2세 국사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1주년을 맞이하여 제 13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에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인연공덕으로 가내와 명품 화순의 화합과 무궁한 번영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 11시**
■ 장 소 : 화순문화원 들국화 공연장
■ 주 최 : (사) 진각국사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HWASUN COUNTY 화순군의회 HWASUN COUNCIL
■ 협 찬 : 화순문화원, 화순초교 37회 동문, 보리밥전문 벽오동 화순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H·P 010-2971-4646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 잃지 말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⑫ 처염상정(處染常淨)

'처염상정(處染常淨)'은 '오염된 곳, 더러운 곳에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는 뜻이다.

혼탁한 세상이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세상이다. 이해관계, 견해 차이, 증오, 욕망과 분노 등으로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세에는 투쟁을 일삼는 '투쟁뇌고시대', '오탁악세(五濁惡世)'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다. '처염상정'이라는 말은 오탁악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하다. 대체로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집단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며 물이 든다. 나중에는 자신이 더러워진 줄도 모른다.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탕아(蕩兒)가 되어 버린다.

보조국사(1158~1210)가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는 "모름지기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遠離惡友 親近賢友)"고 했는데, 인간은 성선(性善)보다는 성악(性惡)에 가깝기 때문이다. 생선 장사를 하면 몸과 옷에 비린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고, 먹물을 가까이하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近墨者黑).

그런데 간혹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있다. 악(惡)이나 통속적,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탕이 고귀한 사람, 마음이 청정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약삭빠른 속인들은 이런 사람을 비웃는 경우가 많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불교에서 연꽃을 짝사랑하는 까닭은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지만 물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꽃과 향기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연꽃이 탁한 곳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處染常淨] 중생들도 진흙탕 같은 사바세계(세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들지 말라는 뜻이다. 본래 뜻은 진리의 영역인 부처의 세계(불성), 본성, 불성, 진여는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꽃을 상징하는 경전이 우리 불자들에게 친근한 〈묘법연화경(법화경)〉이다. 산스크리트 명으로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harma pundarika sutra)'인데, 푼다리카는 '백련(白蓮)', '흰 연꽃'을 뜻한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진리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에 비유한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에는 "(보살이) 세간에 머무르되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것이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處世間如虛空 如蓮花不着水)" 또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번뇌를 초월해 있다(如蓮花不著水, 心清淨超於彼)"고 하여, 보살은 세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찬탄한다.

돈 많은 부자는 겸손하기가 어렵고, 힘센 사람은 주먹 참기가 어렵고, 권력자는 횡포 참기가 어렵고, 미남과 미녀는 바람기 참기가 어렵고, 지식 있는 자는 오만함을 참기가 어렵고, 실력이 있는 자는 과시를 참기가 어렵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겸손한 것은 그가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연꽃의 한 종류라고 할까, 수련(睡蓮, 잠잘 睡)이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전만해도 물 수 자 '水蓮(수련)'라고 생각했다. 물에서 자라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 '수'가 아니고 잠잘 '수'의 수련(睡蓮)이다.

수련(睡蓮)은 저녁때가 되면 꽃잎이 봉우리처럼 오므라든다. 마치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옛 사람들은 '잠을 자는 연꽃(睡蓮)'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이름이다. 수련은 한낮이 되면 다시 활짝 피기 시작한다고 한다. 연꽃과 수련의 다른 점은 꽃잎에서도 구분된다고 한다. 보통 연꽃의 꽃잎은 물 위로 쑥 올라와 있는데 수련의 잎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 주무숙(周茂叔:주돈이. 1017~1073)은 연꽃을 매우 사랑하여 '애련설(愛蓮說)'을 지었다(고문진보). 그는 "내가 연꽃을 사랑하는 것은 진흙 속에서 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흙이라면, 거기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眞金 알려면 불속에서 봐야



격절록 강설

⑫ 백장불자화 4

[評唱 3]

且打葛藤 引相似一二. 不見 丹霞訪龐居士 問靈照云 "居士在否" 靈照 斂手而立. 又問 "居士在否" 靈照攜籃便行. 僧又問靈雲 "佛未出世時如何" 雲竪起 拂子. 又問 "出世後如何" 雲亦竪起拂子. 又問雪峯 "佛未出世時如何" 峯竪起拂子. "出世後如何" 峯抛下拂子 僧禮拜 峯便打. 到這裏 棒頭有眼明如日 要識真金火裏看.

(고인이 언제 제멋대로 쓰는 것을 긍정했는가) 자, 비슷한 것 한두 가지를 인용해서 말해보겠다.

보지 못했는가!

단하(丹霞)가 방 거사를 찾아가서 영조(靈照)에게 물었다.

"거사는 계시는가?"

영조가 두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섰다.

또 물었다.

"거사는 계시는가?"

영조가 대바구니를 들고 바로 가버렸다.

어떤 스님이 영운(靈雲, 영운지근)에게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운이 불자를 세웠다.

또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운이 역시 불자를 세웠다.

또 설봉(雪峯, 설봉의존)에게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설봉이 불자를 세웠다.

또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설봉이 불자를 던져버렸다.

스님이 절을 하자, 설봉이 바로 쳤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밝기가 마치 해와 같으니, 진금(眞金)을 알고자 하면 불속에서 시험해 보라(棒頭有眼明如日 要識真金火裏看)!

---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당대(唐代)의 스님. 청원문하.

마조도일을 친견하고 석두희천 스님의 처소에서 풀깎는 일을 맡아보면서 3년 동안 정진하여 도를 이룸. 후에 남양 단하산에 주석하자, 학도 300여 명이 운집하여 대원을 이룸. 당 장경 4년 6월에 입적. 세수 86. 시호는 지통(智通)선사.

*방 거사(龐蘊, ?~808)

마조도일의 문하. 자는 도현(道玄).

당나라 형주 형양 사람으로, 대대로 유학을 업으로 했지만 진로(塵勞)를 싫어하여 호북성 양양으로 이사한 후 대바구니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함. 석두희천을 만나 선지를 얻은 다음, 마조도일에게 2년간 참학함. 일생을 승려가 아닌 거사로 마쳤지만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진단(震丹, 중국)의 유마거사로 불림. 유명한 공안으로 '호설편편(好雪片片)'이 있다. 시를 잘 지었고, 저서로 '시게(詩偈)'가 있다. 양주 자사 우적(于頔)을 만나 입적할 때도 그의 무릎을 베고 입적했다고 함.

*영조(靈照)

방 거사의 딸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믿음 편 12

미륵은 희망의 아이콘

현실을 살아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미래를 꿈꾼다.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잘 읽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주목받는다. 우리 역사에서는 궁예와 견훤이 그랬다. 그들이 대중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내세운 모델은 다름 아닌 미륵이었다. 왜냐하면 미륵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보살이자 부처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륵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것이다.

모든 부처들이 성불하면 자신만의 정토를 건설한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관념이다. 예컨대 서방의 아미타불이 극락정토를 장엄했다면, 동방의 아촉불(阿閦佛)이 건설한 묘희국(妙喜國)도 있다. 묘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정토라는 뜻이다.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 역시 자신만의 청정한 국토를 건설하는데, 이를 용화세계(龍華世界)라고 한다.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모두 괴로움이 소멸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를 그리고 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정토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미륵(彌勒)은 범어인 마이트레야(Maitreya)를 옮긴 말이다. 본래 자비와 우정을 뜻하기 때문에 자씨보살(慈氏菩薩), 혹은 자비보살로 불리기도 한다.

〈미륵하생경〉에는 미륵이 인도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붓다의 제자가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미륵은 붓다의 지도 아래 열심히 정진하다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고 지금은 도솔천에 머물고 있다 한다.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곧 상생신앙(上生信仰)이다.

이와 달리 56억 7천만년이 지난 다음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생신앙(下生信仰)도 있다. 어찌 보면 미륵신앙은 기독교의 종말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토신앙과 종말론은 구원의 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신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지만, 미륵신앙은 그와 관계없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중생구제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륵신앙 역시 아미타신앙에서 보인 것처럼 사실보다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미륵정토는 먼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이며, 따라서 내 마음이 곧 정토(唯心淨土)라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정토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 미륵사 창건 설화에서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의 왕비인 선화 공주가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을 친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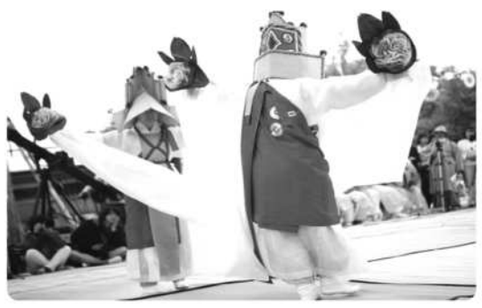
물론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택왕후(沙宅王后)의 발원으로 미륵사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지만, 선화공주 설화에 담긴 선인들의 사유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

비록 설화지만 당시에 미륵불이 출현했다는 것은 미륵정토는 먼 미래의 정토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토라면 이 땅을 청정하게 가꾸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팔관회(八關會)나 백고좌회(百高座會) 등은 본래 이 땅을 정토로 장엄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불교의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는 미륵불을 많이 볼 수 있다. 시무외인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준다는 뜻으로 주로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륵반가사유상은 어떻게 해야 중생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제 미륵의 고민을 우리 중생들이 조금 덜어주면 어떨까? 각자가 주체가 되어 이 땅을 정토로 가꾸면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 13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평화통일에 힘 모으자"

원행 스님, 백준기 통일교육원장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평화통일을 위해 사회와 종교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백준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의 예방을 받고 "평화통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절집에서는 모든 사람을 한뿌리라고 말한다.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준기 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평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통일교육원의 교육을 설명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평화통일에 찬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백 원장은 이어 "평화는 불교정신인 자비와도 연결된다. 평화를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 예방에는 조계종 측에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연꽃마을 대표 원상 스님 취임

3월 23일 취임식 성료 "법인역량 강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3월 23일 파라밀요양병원 1층 강당에서 제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내외 스님들과 300여 대중이 참석해 취임식을 축하했다.

신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1986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 동안거 이래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대승사, 대흥사 등에서 33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천안 은석사, 대구 정법사, 서울 부황사 주지,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금성선원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총무분과위원장, 의료법인 연꽃마을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이다.

취임식 내빈으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등 스님들과 이후삼 국회의원,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상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 계승발전, 법인 역량강화, 법인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법인사옥 이전 및 덕산당 각현 스님 부도탑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출가 전 조리경력 사찰음식에 활용"

Interview

사찰음식 전문강사 청일점 우일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28일 전문강사과정 수료
호텔요리사 · 교수로도 활동
은사 30년 설득에 발심 출가
"대중화 · 체계화 앞장설 것"

"30년 넘은 은사스님의 설득으로 사찰음식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출가 전 조리경력을 활용해 사찰음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사찰음식이 대중화되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명호텔 요리사 출신 사미 스님이 사찰음식 전문가로 나서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우일 스님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3월 28일 서울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사찰음식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1명의 사찰음식 강사들이 배출됐다. 이 중 출가 전 유명호텔 요리사와 조리직업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한 우일 스님은 청일점이자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우일 스님은 현재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으로 5년 전 은해사서 출가했다. 이전에는 경기대 조리학과와 경희대 관광대학원을 졸업,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6년간, 삼성에버랜드 급식사업 파트에서 5년간 일했다. 또 국제조리직업전문학교 조리학과 교수로 3년간 근무하며 후학을 직접 양성하기도 했다.

우일 스님은 30년 넘은 은사 덕조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찰음식 강사의 길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출가를 설득하셨다. 특히 조리사 경력을 살려 사찰음식 체계를 정립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며 "양식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한 만큼 한식, 특히 사찰음식은 도전이었다. 흥거 등 생소한 식자재와 조리방법도 색다른 게 많았다. 장아찌 종류도 약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사찰음식을 배우며 알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음식은 채식을 기반으로 자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이라며 "전통적인 사찰음식 기법에 양식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맛보게 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음식을 접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또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계획도 전했다. 스님은 "일본하면 떠오른 '스시'도 처음 서양에 소개됐을 때는 날것을 먹는 미개한 음식으로 무시당했다"며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홍보를 통해 현재는 최상위 음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사찰음식도 종교음식이란 편견이 있지만 지속적은 홍보와 연구로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음식으로 인식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일 스님은 현재 제주 약천사에 기거하고 있다. 스님은 이번 강사 수료와 함께 제주도에서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찰음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스님은 "제주도의 다양한 먹거리 중에 사찰음식 콘텐츠도 한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약천사에서 참배객들이 직접 요리하고 먹는 관광콘텐츠로 사찰음식을 활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홀몸 어르신 돌본 자비의 쌀"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90가구에 총 1,800㎏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총 1,800㎏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는 3월 23일 그동안 불자들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한 자비의 쌀 1,000㎏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진안군 11개 읍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됐다. 탑사는 지난해부터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마이산 탑사는 3월 23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자비의 쌀 1,000㎏을 전달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정초기도를 통해 불자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돼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진안군 각 면소재 봉사단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도 3월 23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800㎏을 전달했다. 쌍봉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4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됐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성 스님을 비롯한 탑사 신도들과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얀마 극빈지 의약품 전달

미얀마친선교류협회 · 세계불교법왕청 공동



한국 미얀마친선교류협회와 세계불교법왕청은 2월 26일 미얀마 코리아 기술대학교 개교 행사 이후 극빈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3억 원에 해당되는 필수 의약품을 전달했다. 협회와 법왕청은 회장 목탁 스님과 상영민 이사장 등이 참석한 전달식을 통해 미얀마 소수민족들에게 콘테이너 한 차량분량의 의약품을 전달한다. **윤호섭 기자**

"오직 진리 향해 정진하자"

불교조계종, 경남 직할사찰 현판법회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3월 24일 창원 양곡 보현사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직할사찰 보현사 현판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법회의 증명법사로는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스님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가 다르다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종교나 종파 등에 매몰되지 말라. 오직 진리를 향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불교 최고 명호 받아

성원사 주지 박혜정 스님 현지서 수여



충북 영동 성원사 주지 박혜정 스님은 3월 2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최고의 성자 칭호인 아까 마하 사다함마 더티카 하자의 명호를 받았다. 박혜정 스님은 세계불교법왕청 소속 스님으로 오랫동안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극빈지역 봉사활동과 보시행을 펼쳐왔다. 이에 공로가 인정돼 미얀마 불교계서 명호를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중국의 힘은 총에서 나온다”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 언급하며 中 견제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지 60년을 맞이한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 지난 3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달라이라마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1950년 티베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중국에 저항해 1959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3.10 민중봉기’가 발생했다. 평화적인 봉기가 무력으로 진압된 후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문화와 자치를 지키기 위해 인도로 망명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는 “중국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나보다 더욱 차기 달라이라마에 관심을 둔다”며 자신의 사후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달라이라마는 “만약 미래에 여기 인도와 같은 자유국가에서 태어난 사람과 중국정부가 선택한 사람, 2명의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중국이 선택한 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위대한 국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이며 자유가 없다. 따라서 나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단언했다.

달라이라마는 “나의 사후에 달라이라마의 역할, 혹은 제도의 존폐는 티베트인들에게 달려있다”며 과반수의 티베트인들이 원할 경우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여부는 올해 인도에서 열릴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만약 후계자가 나오더라

인도 망명 60년 달라이라마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
“중국, 후계자 선출 관여하면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을 것”

도 그는 정치적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달라이라마는 2001년 자신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티베트 망명정부로 이양한 후 종교적인 책무만을 맡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오래전부터 달라이라마를 향해 “승복을 입은 위험한 분리주의자, 하나의 중국을 파괴하려는 도당의 지도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쳐왔다. 또한 중국황실이 달라이라마를 책



인도 망명 60년을 맞은 달라이라마가 인터뷰서 후계자 선출에 관심 갖는 중국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봉해 왔고, 환생제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선정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정부의 공식접촉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망명티베트인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용 달라이라마를 내세워 티베트를 더욱 억압하려는 전략”이라며 중국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1989년에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2인자인 판첸라마의 11대 환생자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환생자를 반대, 자신들이 인정한 소년을 판첸라마로 내세웠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환생자와 그 가족은 현재 행방불명이다.

중국정부가 인정한 판첸라마는 현재 친중국 행보를 보이며 인도에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며 “최근 외신기자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을 방문하려다가 무장경찰에게 제지된 일이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의 힘은 진실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의 힘은 총에서 나온다. 단기적으론 총이 더 결정력을 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실이 힘을 가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日, 고대 소조불 비밀 밝히다

나라현 오카데라(剛寺) 불상 새 복장물 발견

일본 나라현 천년고찰 오카데라(剛寺)의 본존불인 소조여의륜관음좌상의 정밀조사를 통해 고대 소조불에 대한 실마리가 잡혔다. 3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나라신문’ 등 주요 언론은 최근 정밀조사를 마친 3구의 불상에 대해 보도했다.

나라현에 소재한 오카데라는 7세기 후반에 세워진 진언종 사찰로 본존인 여의륜관음상은 창건 당시에 조성됐다. 높이 4.6m의 일본 최대 조소불상으로 머리 부분은 조성당시 그대로이나 신체는 시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보수돼 약 220년 전에 마지막 보수가 이뤄졌다.

일본 문화청은 2년 전 본존불 광배의 채색에 박탈이 일어나면서 정밀조사와 보수를 결정했다. 동시에 협시불인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애염명왕(愛染明王)



보수와 정밀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복장물이 발견된 조소여의륜관음좌상(사진 가운데)과 부동명왕상(사진 왼쪽), 애염명왕상(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오카데라 페이스북

상의 정밀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정밀조사와 보수를 진행한 나라국립박물관은 모든 조사와 보수를 마친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일본문화청 오쿠 타케오 주임연구관은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불상 내부를 조사했다. 가장 오래된 머리 부분의 경우 나무로 격자를 짠 후 흙을 발라 굳힌 것으로 판명됐다”며 고대 조소상 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본존불 내부에서 높이 60~70㎝ 가량의 금동 아미타 삼존상이 발견됐다. 중존인 아미타여래상의 등에 새겨진 명문에서 220년 전 마지막 보수 당시 삽입된 복장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타케오 연구관은 “오카데라 측의 기록에는 현재 교토박물관에 기탁중인 동제 여의륜관음반가사유상이 원래 본존불의 복장물로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불상을 복장물로 조성해 넣은 것은 불상의 재탄생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대의 불상을 새롭게 후대에 전하고자 한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 협시불상에도 다양한 복장물이 발견됐다. 조성 후 단 한 번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협시불상들을 CT 촬영한 결과 각각 머리 부분에 9㎝가량의 목탑이 복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애염명왕상은 단전부분에 목제와 금속제의 불상이 복장된 30㎝ 가량의 목탑 2기가 다시 복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카데라 측은 수리완료를 기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본존불과 두 협시불에 대한 특별친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비’ 담아 요리하는 ‘불교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 쟝 필립 씨에르 요리법 ‘화제’

“어느 날 육식 소비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바로 붓다의 ‘연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을 음식에 담아 단번에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프랑스인 불자 요리사, 쟝 필립 씨에르(Jean-Philippe Cyr)의 이야기다. 씨에르는 3월 14일 불교 매체 라이언스 로어(Lion’s roar)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왕자로 태어난) 붓다는 처음에 보호받는 삶을 살았다. 부모는 그가 세상 밖의 고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이것은 우리가 동물들이 처한 고통을 모를 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동물 학대에 반대하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씨에르는 “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자각한다. 그것을 나는 ‘연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육식 요리가 전문이던 씨에르가 채식 요리사로 전향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 불교명상 수련회에 참가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사람들의 육식 소비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을 직면했다. 이후에도 400인분의 양고기 요리를 했지만 쉽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이에 그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불교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씨에르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고통이 수반돼야 할 필요가 없다”며 “‘자비로운’ 요리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맛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씨에르의 요리법은 유튜브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비건 초콜릿칩 팬케이크, 태국식 레드 카레면 같은 것들이다.

씨에르는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마음챙김’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온도와 시각, 후각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요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이 마음챙김명상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쟝 필립 씨에르는 채식 요리법을 전파하는 불교 요리사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출처=FVM

씨에르는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며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패스트푸드가 성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맥도날드에 10분도 채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는 두부다. 두부만으로 닭고기나 소고기

씨에르가 만든 태국식 레드 카레면.

식감을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을 맞출 때는 간장과 된장 등 발효 식품을 주로 사용한다. 서양인의 특성상 약간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기도 한다.

씨에르는 채식 요리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육식 소비를 줄이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하면 감자와 당근 같은 것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현대식 채식 요리법은 매우 발달돼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즐겁다”고 웃어 보였다.

씨에르는 매일 아침 위빠사나 명상을 한다. 그는 “매일 아침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오랜 명상 훈련을 통해 ‘무의식’ 마저도 변화한 느낌”이라며 “명상 수련회 때도 똑같은 변화를 봤다. 10일 동안 명상한 비행자, 문제아 등이 매우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 불교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 속)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쓴다”며 “우리는 사냥꾼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한다. ‘우린 좋고, 그들은 나쁘다’고 선 긋는 것 자체가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식 여부로)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4〉 3문–점관찰

點으로 살펴보는 나의 유형



세 번째로 점관찰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관찰, 두 번째 부정관을 하면서 몸 중심으로 관찰했는데, 여기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몸을 중심으로 관찰하다 보면 계속 몸만 들여다보고 바깥을 보지 않게 되지요. 몸관찰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니 몸을 잡게 되고 몸관찰을 더 많이 합니다. 몸이 편안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고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으면 지성이 되고 집착이 되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거든요.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몸을 추구하는 마음은 몸의 기쁨에 집착하게 되지요. 몸의 기쁨은 엄청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몸이 기쁘고, 부드럽게 하면 몸이 기쁘고, 편안하게 하면 몸이 기쁘거든요. 자꾸 하다 보니 몸에 구속되지요. 몸은 물질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자유자재로 되었을 때 몸에서 벗어날 수 있고 3악도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점을 잘 보면 외부로 향하는 마음도 열립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마음과 화합해서 보고, 사물을 볼 때도 사물과 화합해서 봅니다. 마음은 들어왔다 반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들어왔던 마음의 반은 나가고 반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바깥에 점을 찍어 놓고 보는 것이지요. 점을 많이 볼수록, 대상을 많이 볼수록 마음이 확장되고 대상은 더 확장되어 들어옵니다. 점을 계속 보면 울컥울컥 감정이 올라오고, 어딘가 막혀 있는 게 또렷이 관찰됩니다.

점관찰은 점을 통해 대상에 들어가는 관법입니다. 일정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관상법이라고 하지요. 관상법에는 생각을 관찰하는 관상법과 모양을 관찰하는 관상법이 있습니다. 모양을 관찰하는 관상법은 외부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 나무, 바위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인데, 점관찰도 여기에 속합니다. 점관찰이 관상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점이 집중하기 좋아서 몸관찰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점은 고정되어 있어서 산만하고 움직임이 많으며 변덕스럽고 감정기복이 많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뭉침과 긴장을 잘 찾아내서 물질에 집착이 많은 사람에게도 좋은 관상법이지요.

점관찰하며 지킬 원칙

점관찰은 외부에 있는 점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을 보다 보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행위를 많이 집지한 사람은 행위로 많이 나오고, 감정을 많이 집지한 사람은 감정으로 많이 나오고, 생각을 많이 집지한 사람은 주로 생각, 판단, 정보, 분석들로 나옵니다. 점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키며 관찰하면 효과적입니다.

첫째,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점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점을 관찰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몸에 점을 찍든 밖에 점을 찍든 점에만 집중하세요. 의식을 여기에만 둬야 합니다. 바깥의 점에 집중하는 것이나 몸에 찍은 점에 집중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 계속 봐야 하나, 얼마나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점만 보세요. 점은 새까맣고 몰려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셉니다. 또 점은 고정되어 있고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도 관찰시간이 길어지면 점차 안정됩니다. 점만 하염없이 계속 보면 편안해집니다. 몸에서 찾아낸 업장, 몸의 까르마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지요. 껍데기층에 있는 거친 업들은 점이 다 찾아냅니다. 이것이 점관찰의 탁월한 점이지요.

점을 잘 보면 마음이 뭉쳐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알려준 그 부분을 한참 바라보다 몸을 보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너무 단단하면 균열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느낌은 드러납니다. 직접 몸을 보는 것보다 점을 봐서 점이 들어와 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점을 보면 나의 감정, 나의 사고 패턴들이 보입니다. 나를 보는 것보다 점을 보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이, 감정이 그리고 몸의 현상들이 하나하나 잘 보입니다. 간단한데 쉽지는 않지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려워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관념이나 그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몸을 중심으로 하는 관찰은
편안함에 머무르려 하기에
몸 바깥을 보지 않아 위험
점이 외부로 마음을 연다

둘째, 점에서 나오는 현상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점을 계속 보다가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부분을 봅니다. 느낌이 없으면 몸의 특정 부위에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세요. 예를 들어 점을 계속 보다가 경추를 한동안 관찰하다가 다시 점을 봅니다. 점을 보다가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몸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이 들어오면서 부정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점명상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묶어 놓는 습성을 부정합니다. 묶어 놓은 것, 딱딱한 것, 고정시켜 놓은 것들을 점이 찾아내서 풀어 줍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을 내 식대로 고정시키면 그 사람이 고정됩니까? 나만 고정됩니다. 나만 딱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고정시키려다가 오히려 내가 로봇처럼 되어서 지시, 지식, 원칙을 강조하는 말만 합니다. 나와 내 것을 강요하고 유지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계라는 낮은 세계에 탐진치로 얼룩진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계속 변화하는 연기적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정되고 갇힌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점을 잘 보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과 무수히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점을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잘 봐야 한다, 어떻게 봐야 한다는 생각은 외부로 치닫는 마음이기 때문에 얼른 끊고 점만 보세요. 점에 집중하면 무수한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뭔데 나를 알려 줘?'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점은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의식을 점으로 가져가세요. 내가 너무 강하면 잠이 쏟아집니다. 점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졸고, 점을 잠깐 봤다가 졸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요. 너무 졸리면 몸을 관찰해서 피로를 풀고 나서 관찰하든지 아예 졸든지 하세요.

점은 신기하게도 나라는 존재감이 강하면 보기 힘들어요. 내가 중요하고 강하면 타인과 타인의 환경을 보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중요하면 타인에게 배려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요.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읽어서입니다. 그 사람을 느끼면 소통이 돼서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오지요. 인연관계가 그렇습니다. 나한테 왔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넷째, 눈이 아프거나 점을 계속 보기 힘들 때 점을 통해 드러난 몸의 부분들을 차례로 관찰하고 몸을 이완합니다. 눈을 통해 점을 보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피로를 내려놓은 뒤에 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나 한 시간 점을 보면 피곤하니 눈을 감고 몸을 관찰합니다. 집중하기 좋게 몸의 일정 부위에 점을 찍었다 생각하고 그곳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다가 느낌이 사라지면 안으로 더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점을 보면 압니다. 신기해요. 점이 몸을 정확하게 스캔해서 마음까지 찾아줍니다. 강한 마음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몸으로 구현되는데, 구현되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점은 그렇게 구현되지 않은 마음까지 찾아내서 치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관할 때 도구를 만들어서 대상을 없애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점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봐야 합니다. 도저히 볼 수 없으면 눈 감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시 점을 보세요. 어떤 때 마음이 올라오는지 잘 보세요. 누군가 내 것을 가지려 할 때, 경우 없는 짓을 할 때 내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나를 통해 대상이 영향을 받고 대상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나와 대상은 둘이 아닙니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너는 더러우니까 필요 없어. 저리 가"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아(個我)' 입니다. 내 개아가 얼마나 센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대상을 만나 봐야 알지요. 대상을 만나도 내가 부정하면 모릅니다. 점관찰은 외부에 점을 딱 찍어서 관계성을 알게 하는 기법입니다. 점이 내 안의 물질적인 것, 개아로 있는 것을 찾아 줘요.

몸을 관찰하다가 다시 점을 봅니다. 몸을 충분히 관찰하다 집중이 잘 되면 다시 점을 보세요. 점을 관찰하다가 중간중간 몸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집중도를 적어 보세요. 오롯하게 점만 봤으면 100퍼센트라고 적습니다. 중간에 의도를 내거나 조작을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생각으로 빠졌어도 눈을 통해 점을 보고 있었으면 집중도에 포함시키세요.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일체 만법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나고 든다

생사에 초연해지고 싶어요

질문 요즘 나이가 들어 갈수록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져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생사에 초연해지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간이 언짢으니 뭐가 언짢으니 하고서는 금방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수술을 해야 할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왕 죽을 거라면 그럼 편안하게 죽어라.' 이런 생각을, '이왕 죽게 하려면 편안하게 죽게 해라.' 하고선 주인공한테 놓고 편안히 그냥…. 그저 음식들 조심하고 다이게, 왜, 그렇게 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체하게 먹지 말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잘 조절해서 가면은 외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새는 암이라는 게 유행의 이름이에요, 아주. 그냥 누구나가 들어가면 암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가 뭉쳐서 이렇게 굳는다는 거를 인제 침으로 놔서도 고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암이라고 이름을 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벌써 암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영 죽는구나.'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다는 의욕이 없으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 그걸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무리 그냥 자나 깨나 그래도 그게 안 되나 봐요. 몇십 년을 정말, 저는 딴 생각 하는 때가 없어요. 딴 말 하는 때가 없고요.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무슨 절을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부처가 있으면 할 거고 부처가 없으면 못할 거고 그렇거든요. 부처가 있으면 여러분도 다 부처로 동일하게 돼서 동참을 하실 테고 부처가 없으면 못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식들도 재사를 지내 달라고 하니까 그러겠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아무개 아무개 들어오라고 그래서 "재사 지냈느니라." 그러니까 "아, 스님. 언제 재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서 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서 또 차려 놓고 지내 달라고 아래 스님네들한테 내려가서 야단법석을 하니까 "스님이 벌써 누구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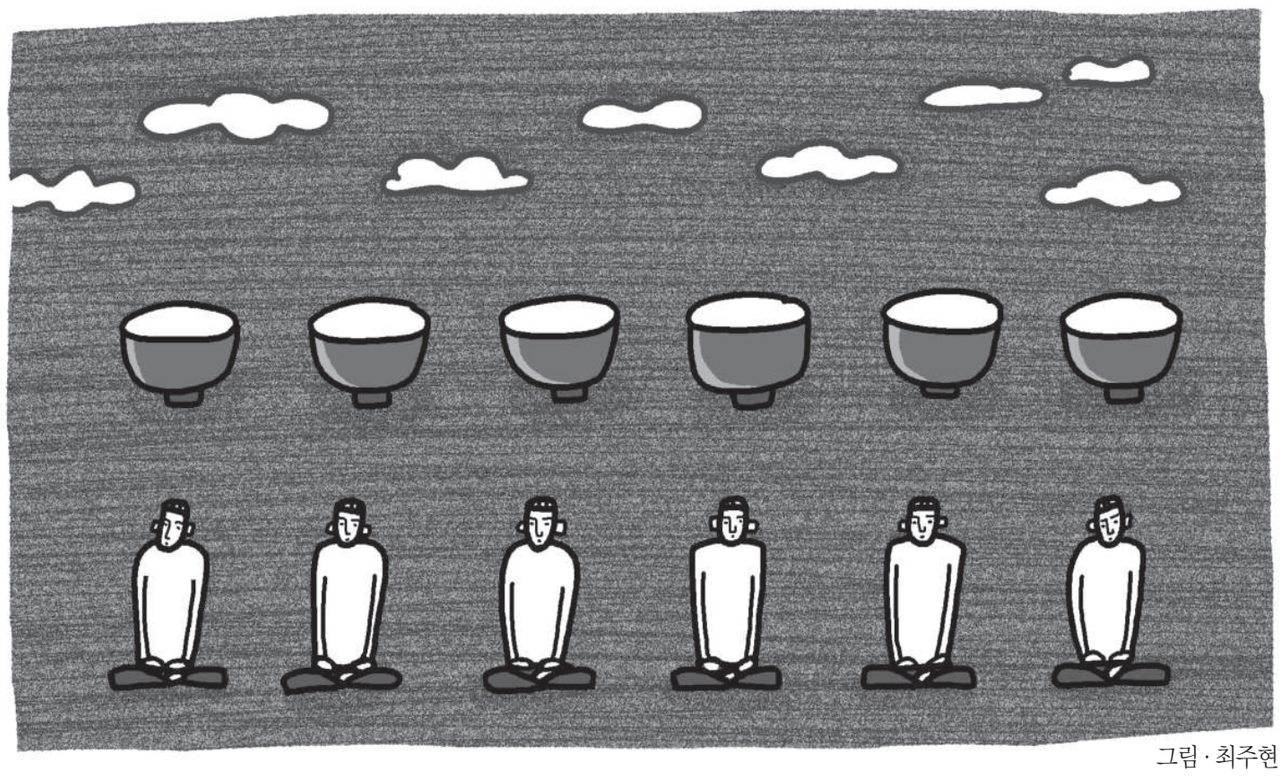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라고 그래서, 저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라고 그래서, 부모 없이 사는 애들 그런 사람들 주라고 그래서 다 줬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네한테 가서 그냥 막 재사 안 지내 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벌써 나는 귀찮지 않게 지내 줬는데 왜 그럴까?" 그러곤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도로 찾아가더랍니다. 허허허. 나도 그런 사람 더러 봤는데요.

너무나 급해서 그냥 참, 그 사람 좀 울지 않고 살게 할 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안 해 줬다고 그냥 돈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돈 받은 거, 초, 쌀 한 움큼 그거 도로 드려라." 그랬죠. 그것이 충주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거 사연이 길지요. 그 사람이 딸 하나만 위로 낳고는 열 몇 살이 되고 스무 살이 가깝도록 어린애를 영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다른 여자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울면서 왔어요. 길에 오다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저 위에 그런 사람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거, 내가 내려올 때 얘기하시더라고, 내려가다가 사람 만날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날 테니까 내려가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꽁지꽁지한 돈, 그때 오백 원인지 얼만지 요렇게 갖다가 주면서 내가 지금 내쫓기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그래요. 아유, 그 스님께서 지금 그렇게 걱정 말고 가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서 어린애를 낳고 사는데 괜찮아졌어요. 다 면하고 그랬는데 또 그 백혈이라나? 뭐, 왜 저, 뼛속에 저거 없어지는 거,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요. 그런 게 인제 병이 생겨 가지고는 그 여자가 또 왔어요. 그러니깐 몇 해 만에 온 거죠. 와서, 이러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살려 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러면 그러마고 그러고선 했더니 그때 돈, 지금으로 치면 한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가지고 쌀하고 초하고, 쌀 한 말하고 초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그 이튿날 말입니다, 남편이 와 가지고는 홀딱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하하하. 남편이 홀딱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이년 저년 하고 그냥 죽일 년 같으니 이렇게 빼낸다고 이러면서 아, 가지고 가요. 그러더니만 남의 말에 들으니까 그 아들은 잘 자라는데 그 그냥 쪼끔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허허허. 그래서 그렇게 그저거 하면 바로 자기한테 가는 거지, 누가 저거 해요?

그래도 부인은 그, 믿고 그렇게 그냥…. 어떤 땐 이래요. 주인공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그, 나 같은 거를 믿고 저렇게 의지하고 찾아왔는데 어쩌나.' 하고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건 나아서 인제 사는데 그 애 학교 보낼 돈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날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누구의 탓이냐? 자기의 탓이죠, 모두가. 너그럽고 지혜 있게 좀 살지 못하고 그렇게 좁게 그렇게 사니까 가난해진 거죠. 마음이 가난하니 어찌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태어난 게 화두예요. 자기가 없으면 상대가 있나요? 자기가 없으면 부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 깜짝하지 마시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우리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세상에, 고생 고생 하다가 인제 사인교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당신 참 좋겠어. 나도 바로 아갈 거야." 하고 그냥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시니까 그거 자식들이 볼 때 기가 막히죠, 딴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은 마나님 돌아가시고 미친 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네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혔소. 눈이 뜨이고 귀가 뜨였으면 당신 발 하나 하나 뚜벅뚜벅 떼어 놓는 대로 법이고 떼어 놓는 대로 도인 것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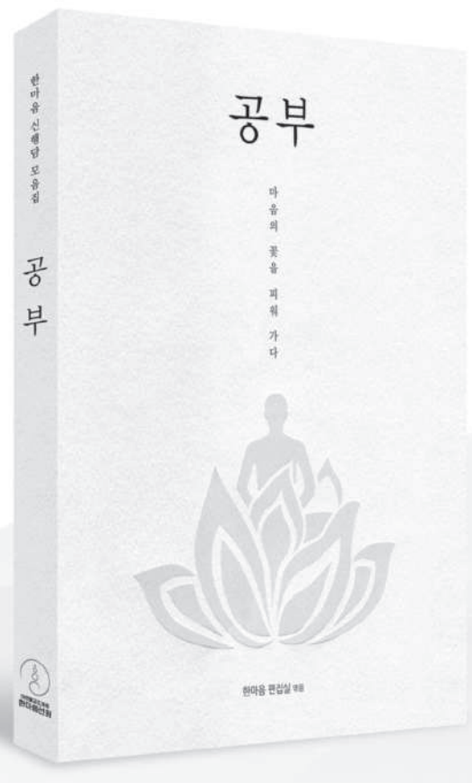
마음이 가난해서 궁핍하게 사는 건지요

질문 살아가면서 생활이 궁핍한 거는 제 마음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밝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항상 그냥 찌그리고, '사는 게 뭐 모두 이러냐.' 하고 그냥 슬픈 생각만 하고 모두 옹졸하게만 생각하니까 옹졸하게 삽니다. 자기 몸이 병이 들고 옹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발란하고 생동력 있고 '불법의 진리는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면서 지혜롭게 산다면 그건 스스로서 풍부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몇 조가, 아니 조라고 해도 틀리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 거는 믿고 의심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지 말라.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믿는 데는 무조건 물러서지 말라. 일체 만법이 자기 마음에서 바로 나고 든다. 자기 마음이 움죽거려야 자기 몸이 움죽거린다.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서 바로 내세울 게 없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에 믿고 바로 맡겨 놔라.

풍차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바람만 불면 풍차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벌써 이거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걱정을 하고 내가, 내가 산다고 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발발발발 방황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 주인이 어엿하게 스스로서 벌써 생각만 내면 우주 법계가 전부 알게 되는데요. 개별적인 내가 아니에요. 전체 포괄적인 나예요. 포괄적인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것이 나다 이겁니다.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고 자유인이라고 하고, 각을 했다고 하고, 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들은 많으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짓지 마라.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그까짓 이름이야, 어떤 걸로 이름을 짓든지 자기네들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기가 이름이 본래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동네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봐서 이게 여기에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이름을 짓고 이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정을 가져라." 이런 게 있지요. 그거는 내가 참나를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의정이, 대(大) 의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비와 자식이 상봉했을 때의 그 기쁨, 또는 기쁘면 기쁜 대로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갈 때 아, 다시 거기에,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이 미지수의 문제를 도대체 당신이나 알지 난 모르는데 아, 이게 뭘까?' 하고 의정을 내는 거지 아니 무조건 모르면서도 의정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건 해 놓고 주춧돌을 튼튼히 세워 놓고 기둥을 세워야지, 주춧돌도 해 놓지도 않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기둥이라면, 만약에 이 대들보로 쓴다면 대들보가 될 것이고 서까래로 쓴다면 서까래가 될 것이고 기둥으로 쓴다면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수만 가지로 쓰여지는데 구태여 이름 지어서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고, 용왕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신장 따로 있고 산신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화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가 바로 병이 나면은 내가, 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약사가 되는 겁니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안팎을 다 경영하는 거죠. 운행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난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떠한 법에 걸렸다면, 법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땐 바로 내가 바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독성이 되는 거죠, 산신이 되고. 내가 명이 짧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내가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좋게 쓰지 못하고선 그렇게 미신적으로 아주 졸렬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졸렬하게 가르쳤나요? 천만에요.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을 끌어들이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 지혜를 끌어들일 수 있고 가난치 않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주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하는 것이 없이 절대적으로 그냥그냥 무심으로 믿어지는 마음이라야 됩니다, 모든 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울해요

질문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마음까지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마음으로도 대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왜 그렇게도 쉽고 그렇게도 빠르고 그런 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데 어째 모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앨 쓰고 즐겁지 못하게 살고 울고불고 야단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조건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왜 못 믿는가. 그 생명이 그 생명이고 바로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행이 그 행이고, 그 사람이 만법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거는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못 깨달아서 못한다,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본래 깨닫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이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광대무변한 이치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한 뚱그런 맷방석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왜, 애들이 화가 나면은 나가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를 가지고 탁 때리면 쑤욱 올라오고 또 탁 때리면 쑤욱 올라오는 이러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있다면, 비유한다면 바로 이것이 쑥 올라오고 쑥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어느 혹성도 될 수 있고 세계도 될 수 있고, 어느 국가도 될 수 있고 또 사회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개별적인 어떤 한 집 한 집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선 이것이 불덩어리일 때는 불망치로 때려야 됩니다. 만약에 불덩어리를 불로 때리지 않는다면, 또 무슨 막대기로나 이런 걸로 때린다면 그게 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때리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쑥 불거져 나오면 또 때린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 때리면 저기 나오고 저기 때리면 여기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적으로 살아나가는, 조그맣게 친다면 세계적이고, 아주 더 작게 친다면 국가적이고, 더 크게 친다면 우주적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럴 때에 그렇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럴 때 혼돈이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혼돈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조그맣게 치면 한 가정이지만, 아주 작게 치면 내 몸의 혹성이지마는 크게 치면 우주적으로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진짜로 믿고 진짜로 꼬리를 붙이지 않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믿는 반면에 아주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하는 것도 없이 그냥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무심으로 믿어지는 그 마음이라야만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세상도 지금, 아까도 그랬습니다. "얘! 일요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아니, 참 빠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쉴 사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눈이, 눈동자가요, 일로 돌아갔다 절로 돌아갔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한 번 눈동자가 돌아갈 때 우주가 돌아가듯 이렇게 빠르구나." 이래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그 반면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빠르게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서 벌어져야 알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질 모르거든요.

전에 리비아를 미국에서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소련으로 전문을 띄워서 우리는 보복 단계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무슨 뭐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이, 이거 그러면 미국 외에는 곤란한 점이 생기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요 얘기를 거기 포함시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불쑥 나오면 이걸로, 이 망치도 사람을 때릴 때는 몽둥이가 되고, 또 그런 걸 때리는 데는 불망치가 되고, 또 쇠를 쳐서, 쇠를 칠 때는 쇠망치가 되고, 또 전자력을 칠 때는 전자 망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런 문젭니다. 이 망치도 하나로, 하나가 아닙니다. 찰나찰나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그 쓰여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찰나찰나 이게 화해서 옮겨 가면서 씀씀이를 쓰고 있는 우리 생활에서도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닥치는 건 이렇게 막고, 여기에서 이렇게 닥치는 거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정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럭하면 안 되지. 그럭하면 곤란해지고 회담도 곤란해지고 오손도손 참,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고, 불쑥 튀어나오는 거는 그저 쳐서 너무 나오지 못하게끔 해야 이게 평등해질 테니까. 그저 나오면 좀 때려서 들여보내야 될 거야. 그래야 혼돈이 오지 않겠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이 그런 말을 그대로 했어도 나 그대로 그냥 말한 거하고 여러분들 말한 거하고 다른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럭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남으로써, 그 말이 나옴으로써 이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스님, 아이고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딱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드리기 위해서 얘깁니다. 모든 걸 믿고 생활하는 데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모든 일체 만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느껴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지켜보지도 않았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봐.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이 공기와 바람, 또는 그 무중력의 전자력을 이렇게 중단시키면 일로 바람이 오질 않아. 이 허공에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울타리가 쳐질 수도 있고 울타리가 안 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 맞아도 좋아. 그 비를 맞으면 외려 생기가 날 텐데." 거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검증을 해 보라지, 나오는 게 있나.' 하고선, 우리의 그 빠른 거, 빛보다도 더 빠른 인간의 참마음이, 그 참마음 한 점이 우주의 그 일체 만법을 우리 삶과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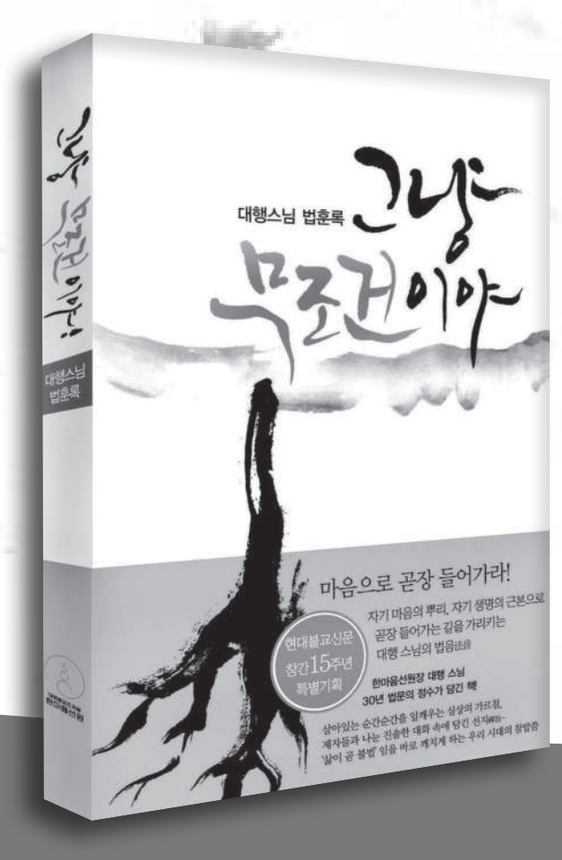
참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참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사람들 마음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를 해 보려고 하니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 참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을 일러 주십시오.

답변 본래 마음은 저 달나라에도 그냥 지금 한 찰나에 갈 수 있고, 한 찰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도는 아니지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해서, 만약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수레가 돌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거기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가 있을 법도 없을 거고, 또 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 '왔다' 예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이 세상 살아나가기만 수월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이고 자기가 뿌린 거 다 거둘 수 있고, 수없이, 과거에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오면서 지은 그 인연, 인과들.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주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공부하는 데 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니까요. 생활도 잘해야 돼요, 모범 있게.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조계종, 이제 직할교구 分區를…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교구제, 역대 총무원장 핵심 공약
원행 스님도 '교구중심제' 제시해
분권화보다 중심제가 진일보 종책

교구 간 불균형 해소가 우선 과제
직할교구에만 620여 사찰 소속돼
최하위 교구 비교하면 13배 차이
직할 비대는 종단 운영 장애요인

강북-조계 · 강남-봉은 본사로 두고
필요하면 인천 · 강화도 분리시켜야

교구제는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교구중심제'는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주요 종책이다. 중앙이 아닌 교구가 종무행정의 중심이 되어 종단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1994년 개혁불사 이후 중앙의 권한이 상당 부분 교구로 이양되어 교구분권화가 이루어진 조계종이 이제는 그 분권화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구들이 종단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중심제는 교구분권화에서 진일보한 종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교구중심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교구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우선 고민하여야 한다. 교구 간 균형성장이 이루어져야 교구를 중심으로 종단 전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직할교구와 각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23개의 지역교구들로 조직되어있다. 조계종의 전체 사찰 수는 3100여 개이고, 전체 스님 수는 1만2천여 명이다. 그 중 직할교구에 620여 개의 사찰과 3100여 명의 스님이 있다. 전체의 사찰 수와 승려 수 대비 직할교구가 공히 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직할교구의 사찰 수와 승려 수를 2순위인 교구 그리고 최하위 순위인 교구와 비교해보면 직할교구의 비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할교구 다음으로 사찰 수가 많은 교구는 14교구(범어사)로 230여 개의 사찰이 있으며, 승려 수가 많은 교구는 12교구(해인사)로 1500여 명이 있다. 직할교구가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2순위인 교구들과 비교해볼 때, 각각 약 2.7배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직할교구와 제일 규모가 작은 교구를 비교해보면, 보다 더 극명하게 교구 간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사찰 수와 승려 수가 제일 적은 교구는 23교구(관음사)다. 23교구에는 48개의 사찰과 85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다. 직할교구가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사세(寺勢)가 제일 작은 23교구에 비하여 각각 약 13배와 36배 정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할교구가 여타의 교구에 비하여 비대한 이유는 수도인 서울에 많은 수의 스님과 사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로의 쏠림 현상은 종단이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할교구의 비대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종단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구와 인력의 과밀은 불가피하게 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교구 간 불균형 문제의 공감을 전제로 하고 직할교구의 분구를 고민한다면, 서울의 지리적 여건상 분리가 편리한 강남과 강북으로 획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면, 강남은 봉은사를, 강북은 조계사를 교구본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북의 조계사는 현재와 같이 교구본사로 두고, 강남에는 봉은사를 교구본사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으로 직할교구를 분구하여도 그 비대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다소 구역의 획정이 복잡하더라도 인천 · 강화지역을 별도로 수도권을 3개의 교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음산책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올해 좌우명은 '소욕지족'

나는 매일 2층 복도에서 걷기명상을 한다. 걷기명상의 마무리는 자연의 결정체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다. 오늘도 짙은 남색의 바다가 뚜렷하길 바라면서 먼 산등성이 너머를 바라본다. 바다는 보이지 않고 희뿌연 하늘만 그 자리를 덮고 있다.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곳에 있다. 그보다 가까운 하늘과 산이 맞닿은 곳, 산등성이에는 나무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산과 물, 나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평화롭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신문을 펼쳐본다. 지면을 메우고 있는 세상은 온통 탁하고 거칠기만 하다. 조금 전 고요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때로는 분노도 일어난다. 한 순간에 내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와 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기쁨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기쁨으로 왕래한다. 그러한 마음을 보면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불안이나 우울 쪽으로 더 가까이 가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만나서 즐겁기보다 바깥세상의 즐겁지 않은 대상들로 인해 마음은 우울해진다. 사회는 화합보다 분리되어 서로 다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경쟁하며 이기고 승리하려고 애쓴다. 어떻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적절하게 불편함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기해년을 맞이하면서 좌우명으로 '소욕지족(少欲知足)'을 택했다. 나를 소중히 여기되 나를 넘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그런데 소욕지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지속되어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도,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우리가 순간을 만나지 못하니 그 자리에는 과거나 미래가 들어와 자리를 메운다.

〈육조단경(六祖壇經)〉은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에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적인 평화이다. 여기엔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쁨을 놓친다. 그 원인은 우리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만나려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치 마룻바닥의 널빤지 사이에 틈이 있으면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잡념이 끼어든다. 그 틈으로 힘들었던 과거가 끼어들거나 힘들지 않을 미래가 끼어든다. 어떠한 감정이든 그것은 현재를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도 불안하고 우울하며 긴장상태를 보임으로써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때로는 슬픔에 빠지거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가 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부정적 감정의 편향성(Negativity Bias)이라고 한다.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에 비해 쉽게 기억되고 오래 저장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면서 괴로움을 낳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방황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창가로 간다. 눈을 들어 머리 위를 바라보니 하늘은 더 맑고 파랗다. 내 마음은 금방 평화롭고 고요하다. 이처럼 평화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社 說

안전장치 절실한 직능대표 선출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가 현행 선거법을 제정하며 삽입한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전문성 조문이 삭제됐다. 25년 전, 개혁회의는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대의기구라는 명분 아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율원 · 선원 · 강원 · 교육 · 포교 · 사회 · 복지 · 문화 · 법제 · 행정 등 10개 분야에 각각 2석씩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의미 있는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성 조문 외에 특별한 기준이나 검증절차에 대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능대표 선출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어느 때는 "강원 안 나온 스님이 어디 있고, 절에서 교육 포교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느냐"는 잣대를 들이 밀었고, 다른 때는 "구체적인 경력사항 없이는 직능대표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고무줄 기준'으로 선출했다.

이는 총무원장이 4명,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각 2명, 중앙종회서 선출한 6인이 각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결국 특별한 경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종책모임의 입김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면서 '계파 간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전문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하나의 문제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종회의원들이 25년 전 개혁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나눠먹기'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포교, 지역 연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로 일컬어지는 청년포교, 그 중 핵심인 대학포교 현장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남대를 비롯해 다양한 대학의 불교학생회에서 신입회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남대의 경우 최근 63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여자간호대도 23명의 신입회원이, 경북대도 12명이, 중앙대도 약 30여명이 가입했다. 이처럼 대학포교의 약진 속에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접근한 포교방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동아리방을 제공하는가 하면, 학번이나 기수가 강한 대학에서 수평적인 나이 기준의 소모임을 구성하는 등의 친절한 배려를 시작한 불교동아리들이 늘었다. 여기에 명상과 스님들과의 상담 등을 더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러한 대학 불교학생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불교계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불교계 데이케어센터와의 연계가, 그리고 전남대의 경우 지역신행단체와의 연계가 학생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이끌었다.

사찰과 불교학생회가 연계해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찰 신도회 내에 대학 불교학생회를 후원하기 위한 별도의 후원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선배들과 지역사찰 신도회 등이 함께 연계된 불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다. 300만 불자 감소의 이면에는 청년불자층의 이탈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포교의 약진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국의 각 사찰과 단체들은 새롭게 움트고 있는 대학불심을 향해 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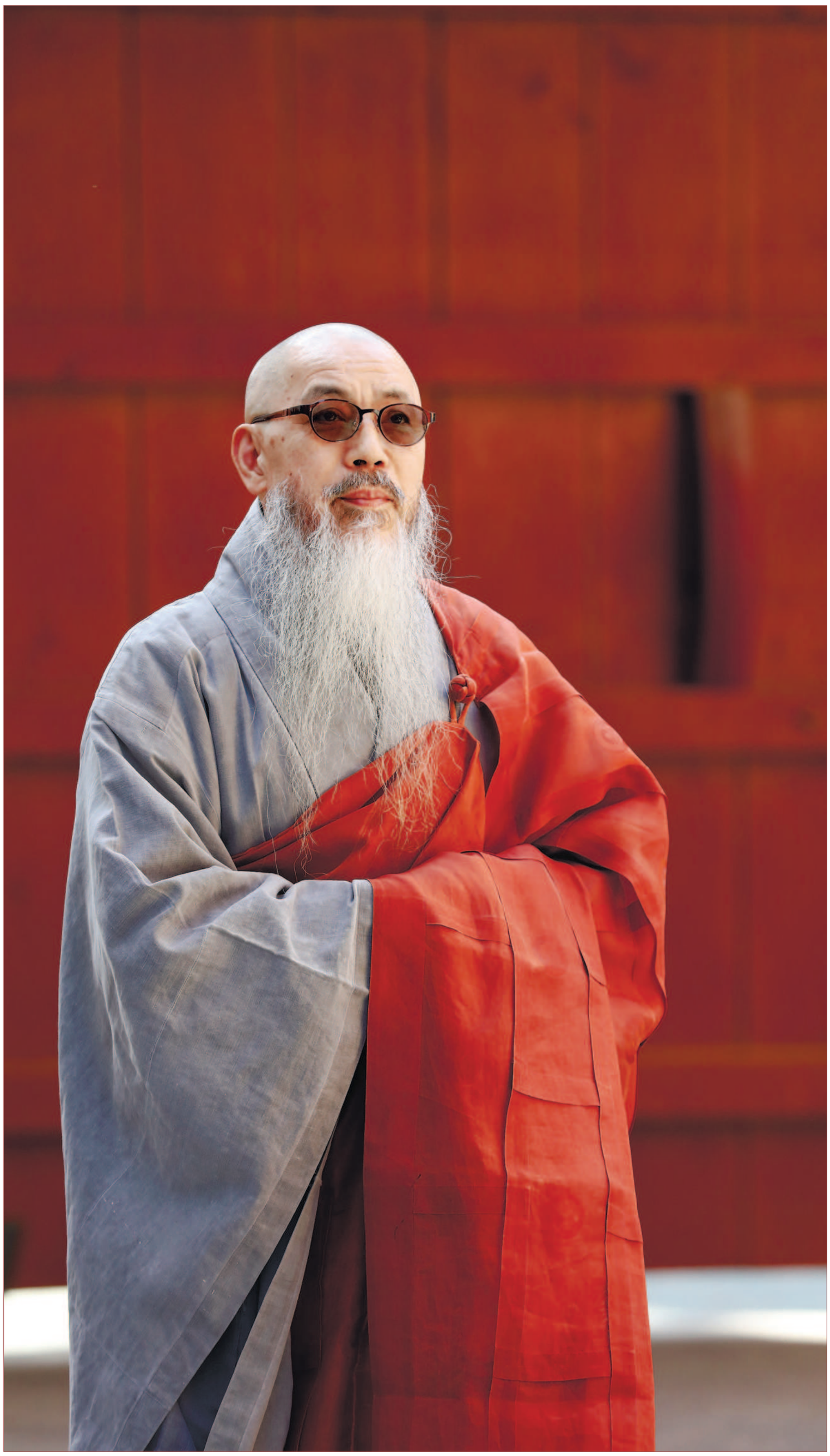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킬리만자로에 불교씨앗 뿌린 전법승



동봉 스님은… 1975년 불문에 귀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법명은 정휴(正休)이며 자호는 일원, 법호는 동봉이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BBS불교방송에서 '살며 생각하며', '자비의 전화' 생방송을 진행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전법과 말라이라 구제활동을 펼쳤다. 한국 출가자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기술농업대학의 부지를 마련해 조계종에 기증했다. 곤지암 우리절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책, 법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佛法을 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포의 새벽편지'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서울 대각사 주지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동봉 스님(66 · 대각사 주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수로나로 가겠습니다." '설법제일'로 불리는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들은 후 수로나로 향한다. 부처님은 걱정이 앞선다. 수로나는 아직 법이 전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사나웠기 때문이다. 결국 부루나는 수로나에서 열반에 든다. 순교였다. '신통제일'이었던 목건련도 전법의 길에서 순교로 열반에 들었다. 이처럼 법의 불모지에 법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절마다 전법의 원을 품고 낯선 곳을 찾아 나선 불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도 불법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도 낯선 곳을 바라본 불제자가 있다. 그가 바라본 낯선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그 원력의 주인은 동봉 스님이다.

佛法 불모지, 아프리카

부루나 존자가 '설법제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큰 전법원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원력이 곧 불사였다. 전무후무한 아소카왕의 전법을 비롯해 전법은 쉼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꽃피지는 못했다. 아직도 부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은 많다. 그 많은 처처가 시절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년설의 봉우리를 지닌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마침내 불연이 시작된다.

2004년 11월. 동봉 스님은 킬리만자로를 보기 위해 탄자니아를 찾았다. 단순한 '여행'이었다. 그것이 '佛씨'였다.

"그야말로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한국불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불교 자체가 없었어요."

아프리카 54개국에 한국불교는 없었다. 일부 극소수의 나라에 불교가 있었지만 그 저변은 매우 빈약했으며, 그 빈약함 속에서조차 한국불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프리카에 불교는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타종교는 이미 자리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겨우 100년의 역사를 가진 타종교도 생각해낸 것을 1천7백년, 아니 2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웠죠."

부처님 말씀이 닿지 않은 곳,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길을 걷는 이방인의 낯선 한 걸음 한 걸음은 뜻을 품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불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마음속에선 전법의 원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창한 원력이라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불법(佛法)'이라는 씨앗 하나 심고 싶었어요."

낯선 땅, 다시 킬리만자로

떠나는 발걸음은 '떠남'이 아니었다. 킬리만자로를 떠나는 동봉 스님의 발걸음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채비였다. 한국에 돌아온 스님은 킬리만자로로 돌아가기 위해 미련 없이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한다. 경기도 광주시 우리절의 주지였던 스님은 그동안의 불사와 많은 인연을 뒤로 한 채 2005년 3월 다시 킬리만자로로 향한다. 또 다른 출가였다. 삶에서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출가가 아닐까. 오래전, 삶에서 삶을 정리했듯 스님은 또 한 번 '길'을 간다.

다시 킬리만자로 땅을 밟은 동봉 스님은 홈스테이로 킬리만자로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현지의 언어, 현지의 문화부터 익히고 알아야했다. 그리고 전법에 대한 구상을 해야 했다. 탄자니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한국의 타종교는 열심히 길을 닦고 있었다. 불법(佛法)이라는 씨앗 하나가 전부인 동봉 스님에게 킬리만자로는 부루나의 '수로나'였다. 처음부터 부처님의 '佛'자를 꺼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현명한 일도 아니었다.

스님은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법의 전부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매주 교회나 성당에 나가 현지인들과 교감했다. 스님의 손엔 경전도 종교도 없었다. 누가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의 이방인. 탄자니아에는 왜 왔을까. "탄자니아에는 왜 왔나요?"라는 현지인의 물음에 스님은 "와보니 살고 싶어져서 다시 왔다"고 했다. 그렇게 스님은 탄자니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킬리만자로에 울리는 한글반야심경

2006년 2월. 동봉 스님은 홈스테이를 정리하고, 킬리만자로 산자락 해발 약 2천m에 약 3천 평의 땅을 마련한다. 아프리카에서의 길을 시작해야 했다. 그 옛날의 순도, 마라난타를 기억하며 동봉 스님은 낯선 땅에서 '길'을 시작한다.

스님은 마련한 땅에 작은 움막집을 하나 짓는다. 이름은 '보리가람스쿨'. 이름은 학교였지만 그것은 한국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도량불사였다. 출가자의 거처이고 그 출가자에겐 진한 원력이 있으며, 후에 부처님도 모셨으니 그것은 분명 법당이었다. 법당의 불상은 탄자니아 사람이 탄자니아의 특산품인 흑단으로 조성했다. 일명 '마사이 불'이다. 마사이족의 얼굴을 닮았다. 탄자니아 사람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얼굴이다. 마침내 탄자니아 출신의 불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며, 탄자니아 땅에 부처님의 실존이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낮엔 아이들이 몰려와 공을 차고 목탁을 두드리며 놀았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고요가 찾아오면 도량엔 스님의 독경소리가 흘렀다. 아프리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법당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 보살행자 깊은반야 실천하여 저언덕에 도달하는 바라밀다 하올때에 오온모두 공한것을 분명하게 비춰보고 이세상의 일체고액 모두벗어나느니라…"

어느 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기슭에서 반야심경이 들려온다. 동봉 스님의 4언절구 〈한글반야심경〉이다.

B2면에 계속

아프리카에 전법 원력

"아프리카에 한국불교 없어"
킬리만자로에 '가람보리스쿨' 불사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 도량
불상 모시고 〈한글반야심경〉 알려
현지서 아프리칸 이름 '기포' 받아
종립학교 부지 3만 평 마련 기증
탄자니아 전국 돌며 말라리아 구호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四物의 기원과 선원 환경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2019 테마전

B6 학술
미군 가져간 신흥사 경판 '환지본처'

끊임없는 법보시… “수행이 곧 전법”



동봉 스님은 탄자니아인들에게 한글반야심경을 가르쳤다. 첫날 학생들과 기념사진.



동봉 스님이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지은 보리가람스쿨. 아프리카 최초의 불사다.



말라리아 환자 돕기 활동 중인 동봉 스님.



보리가람스쿨 표지판.

‘동봉 스님’

B1면에서 계속

스와힐리어 발음기호로 적어준 〈한글반야심경〉을 탄자니아 사람들이 독송하고 있다. 물론 스님은 그들에게 〈반야심경〉이 무엇인지, 그 글자들이 가진 뜻은 무엇이지도 알려주었다.

스님이 도량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처음 던진 것은 ‘참선(좌선)’ 이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명상에 잠긴 스님의 모습은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참선이 무엇이냐?”는 탄자니아 사람들의 질문에 스님은 “나를 찾는 일이다”고 대답했다.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돌아왔고, 스님은 “먼저 〈반야심경〉을 독송해야 한다”고 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빠르게 참선에 빠져들었다. 스님이 나무 밑에서 가부좌를 틀면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 듯 만들어진 일상은 ‘법회’ 가 됐다. 많을 땐 300명이 넘게 마당을 메웠다.

동봉 스님은 매주 참선법회를 열었다. 열었다기보다는 열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해진 날도 없었고 알림도 없었다. 구름이 차면 비가 내리듯 사람들은 스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스님은 죽비를 들고 한국의 선방에서처럼 참선을 지도했다. 그리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한국불교 최초 아프리카 교육도량불사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날아온 ‘동봉’ 이라는 밀알은 한국불교 최초 아프리카 종립학교불사라는 대작불사를 틔워낸다. 2016년 9월 5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 가 문을 연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와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학교는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이 3년에 걸쳐 회향한 아프리카 최초의 종립학교다. 역사적인 불사는 동봉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동봉 스님이 킬리만자로에 법당을 세우고 참선을 시작했을 무렵, 동봉 스님은 또 하나의 큰 불연을 만난다. 故 이태석 신부다. 이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서 나병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지금도 이 신부는 ‘수단의 슈바이처’ 로 불린다.

2006년 4월 30일. 동봉 스님의 소식이 TV 전파를 탔고, 이 신부는 방송을 통해 스님의 소식을 듣게 된다. 많은 책을 출간했던 동봉 스님이었다. 이 신부는 오래 전부터 동봉 스님의 책을 통해 스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반가웠다. 두 사람은 케냐에서 만난다.

“스님, 탄자니아에서 무엇을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신부가 물었다. 스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학교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절이나 명상센터가 아니었다. 부지불식중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스님은 지금도 왜 그런 대답이 튀어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말은 그 자리에서 원력이 된다.

동봉 스님은 다시 킬리만자로를 떠나야했다. 원력이 된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까지 탄자니아 불교문화아카데미 건립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원을 세우고 ‘101’ 일 국토대장정을 회향한다. 우리절을 출발해 매일 20~30km를 걸어 전국을 순례했다.

국토대장정을 마친 동봉 스님은 다시 킬리만자로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연이 찾아든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었다. 2008년 8월, 동봉 스님은 박 회장이 후원한 2억 원으로 다르에스살람에 약 3만5천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봉 스님의 원력은 조계종이 2013년 발표한 아프리카 학교건립 추진 사업과 만나게 된다. 스님은 학교 부지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증하고 3년 후 이 신부와 약속한 원력을 회향하게 된다.

스님은 킬리만자로 보리가람스쿨에서 참선을 시작하면서 말라리아 환자를 돕는 일도 시작했는데, 탄자니아 전역을 돌며 말라리아 환자의 의료비(약값)를 지원했다. 스님은 봉사와 학교건립 불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척 기뻤지요. 절 하나 지은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함으로써 그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이고, 그들의 삶에 한국불교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출가 전 〈법화경〉 등 경전 탐독
22세 때 치악산 구룡사서 출가
해인사서 고암 스님 법 이어
용성선사 어록집 등 저술 62권
소셜미디어 전법 ‘기포의 새벽편지’
1500회 돌파 매일 3천여 명 설법

불연으로 가는 길

동봉 스님의 불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스님은 1975년 치악산 구룡사에서 출가했다. 강원도 횡성 산골에서 태어난 청년은 배움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당서 뗐다.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뗀 셈이다. 열다섯 살부터는 〈명심보감〉을 비롯해 〈논어〉 〈맹자〉 〈소학〉 등을 완독했다. 하지만 스님이 안고 있는 형편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부족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스님의 배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불연으로 이어졌다.

스님의 이모가 치악산 구룡사의 신심 큰 신도였다. 동봉 스님의 불연은 이모 집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동봉 스님은 이모 집을 찾았다가 새로운 세상의 책들을 만난다. 이모 집에는 〈법화경〉 〈유마경〉 등 경전들이 많았다. 한문에 밝았던 스님은 그 책들을 모조리 읽어버린다. 새로운 세계였다. 스님은 다른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를 경험한다. ‘불교’ 였다.

1975년 음력 2월 15일 열반재일에 스물두 살의 청년은 이모님이 계신 치악산 구룡사로 향한다. 난생 처음 하는 걸음이다.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주검이 곧 열반이다.”

동봉 스님은 법회가 끝나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 법문의 뜻을 여쭈었다. 주지 스님의 답은 너무나 허무했다. “주검이 곧 열반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더 묻느냐? 주검이 곧 열반이니라.”

스물두 살의 청년은 이틀 후 다시 구룡사를 찾았고 머리를 깎는다.

상구보리하화중생

동봉 스님의 배움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불연으로 가는 길이었다. 출가한 그해 가을 동봉 스님은 고암 스님과 인연을 맺고 법을 받는다.

학구에서 비롯된 출가는 배움의 길을 여는 법보시로 이어진다. 스님은 지금까지 62권의 책을 출간했다.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의 번역서, 해설서를 비롯해 용성선사의 어록집, 산문집 등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시 동봉의 글자로 회향했다.

“출가자로서 하루하루 수행에 매진하는 것이 곧 전법인 것 같아요.”

스님은 아프리카라는 낯선 땅에 원력을 심은 것을 비롯해 아픈 사람을 돕고 법보시를 하는 등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불사들을 모두 ‘수행’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수행이 대중에게는 전법이 된 것이라고 했다.

2009년 2월 탄자니아에서의 전법을 마치고 귀국한 동봉 스님은 쉼 없는 저술을 이어갔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시작한다. ‘기포의 새벽편지’ 다. 매일 3천여 명의 대중에게 전해지는 동봉 스님의 설법으로, 1500회를 돌파했다. ‘기포(kipoo, 起泡)’ 는 동봉 스님의 아프리칸 이름이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킬리만자로의 최고봉 ‘키보’ 에서 왔다. ‘빛나는 산’ 이라는 뜻의 킬리만자로, 그곳에 불상을 새기고 반야심경을 알리고 온 한국 최초의 전법승 기포. 그가 뿌리고 온 佛씨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2017년 4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에서 첫 학생 불자가 나왔다. 4명의 탄자니아 학생들은 조계사에서 계를 받았다. 그 옛날 우리가 순도와 마라난타의 이름을 역사에 적었던 것처럼, 훗날 탄자니아의 역사는 ‘기포’ 라는 이름을 역사에 그렇게 적을 것이다. 기포 스님은 “수행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키보에서 빛나고 있는 만년설처럼 기포의 수행은 계속 되고 있다.





미얀마 선원서 '목어'를 만나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⑥ 四物의 기원과 선원 환경



마하시 선원에서 만난 북이 빠진 세 가지 법구. 큰 야자수 나무의 몸통을 일자로 파서 만든 목어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침 기상과 공양시간 등을 알린다.

오후불식 수행환경과 선풍

다음은 마하시 입방 15번째 날(2011년 12월 28일)의 기록이다. 오후불식 때문인지 기진맥진하다. 오후불식하는 스님들이 더 존경스러워진다. 갑자기 초기경전인 〈소나경〉이 생각난다. 이곳 스님들 가운데 뚱뚱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모두 깡마른 느낌이다. 스리랑카 등지에서 가끔 비대한 몸을 가진 스님들을 보는데 오후불식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마하시 도량에는 현재 약 500여 명의 대중이 상주한다. 상수 스님은 자띨라(Jalita) 스님이며 외국인 감독 스님(Warden)과 관리 스님(in charge)인데 공양청 안쪽에 멀리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인다. 공양청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멀리 바라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스님들도 눈에 들어온다. 그러한 스님들은 따로 공양을 드시는 줄 알았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공양을 들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러고 보니 상수 스님은 대단히 소박하신 것 같다. 법랍이나 세수로 쳐도 법랍 60세이상, 세수는 75세 이상이실 텐데도 선원 도량에 시자를 앞세워 시봉을 받으며 다니시지 않는다. 이를 한국 젊은 스님은 유심히 보았던지 가끔 혼자 말처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랍의 스님이라면 시자의 부축 받으며 다니실텐데" 다시 스님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 "발심 출가자를 처음부터 공부보다는 어른 수발과 허드렛일에 묶어놓는 것이 좋은가? 공부의 방편이겠지만"하며 혼잣말을 한다.

미얀마는 수행처마다 각기 특성이 있는 선풍(禪風)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은 미얀마 선원의 각기 다른 선풍의 수행처를 두루 다니며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비교하며 자기에게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이야기한다.

한 한국 비구니 스님은 미얀마 다른 수행처의 정기적인 인터뷰에서 현재의 수행처와 다른 수행처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다른 수행처와 비교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란다. 서로 존중에서인지 행법과 이론에 대해서는 시시비비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각기 선원의 입장에 따라 충실한 것 같다. 각 미얀마 수행처마다의 특성을 찾아 한국인들 또는 외국인들은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멀리까지 찾아다닌다. 버스와 다른 교통편을 번갈아 이용하여 몇 시간(8시간 이상) 걸려 찾아다니는 것을 멀다고 힘들어 하지 않는다. 마치 중국 당나라 때 제방(諸方)의 개성 있는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구도행이 이루어졌다는 시대가 이와 비슷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불교도 좀 더 개성있는 선사들이 많이 나와 구도자들을 찾게 하는 활발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인다.

사찰 불구 유래

우리나라 사찰에서 본 사물(四物) 등의 불구가 비슷하나마 여기에도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찰의 범종각처럼 사물을 한 장소에 모아둔 것도 같았다. 물론 북을 제외한 세 가지이다. 이제까지 범종과 법고, 목어 그리고 운판 등의 기원은 순전히 중국과 관련하여 유래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물의 기원을 인도불교로 추적하여 그 연원을 설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종을 제외한 사물은 인도불교나 동남아 상좌불교권에는 없는 것으로 짐작해 왔다. 그런데도 초기불교 경전이나 후대 인도불교 기록들을 보면 때를 알리는 기구가 언급되는 경구나 맥락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알아보려는 생각은 접는다. 제대로 규명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사물 가운데 먼저 목어는 큰 야자수 나무 몸통을 일자로 파서 둔탁한 소리를 내어 아침 기상과 공양시간 등의 때를 알린다. 이를 보면 목어의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불교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목어는 차츰 줄어들어 현재 한국불교에서 사용하는 목탁이 됐다.

목어 등 '사물' 미얀마서도 존재
가죽 이용한 북만은 찾기 어려워
각국 비교 사물 기원 연구 필요해

외국인 관리 스님에게 공양 후 때를 알리는 야자수로 만든 기구의 이름을 물어보니 미얀마 이름을 알려준다. 하지만 종이와 필기구가 없어 적어 놓을 수 없다. 스리랑카나 태국 등지에도 찾아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한다. 만일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국가에도 이러한 법구가 있다면 목탁과 목어와 운판, 종 등의 기원을 분명 인도불교로부터 유래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사찰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는 많이 되어있는 것 같지 않다. 특히 각각의 불교권마다 비교적 관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관해서는 불교 예술이나 의식 전공자가 연구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물 가운데 북은 미얀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짐작하건데 북은 동물의 가죽이 이용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계율 상 출가자가 동물의 가죽은 이용할 수 없어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상좌부 나라의 사찰에서 북이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북 사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북은 세속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확인했다. 미얀마 지방 사찰 경내에 북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보았다. 이후 인도 대승불교에서 북 사용이 중심 법구로 사용되어졌음은 인도네시아를 답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는 상좌부불교보다는 대승불교의 영향이 컸다. 지역과 시기를 넘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인도기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사찰의 사물이 순전히 동아시아서 유래하는 것으로 짐작하였던 것이 사실은 멀리 인도불교로부터 유래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퍽이나 흥미로운 연구주제처럼 생각되어 처음에는 이를 밝혀본다는 것에 흥분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일을 생각해 본다. 다만 이 같은 기록을 남겨 놓으면 후일 누군가 비교적으로 연구하여 밝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격렬한 소리와 고요한 소리

간밤 불을 켜놓고 잠들었다. 조금 쉬었다 다시 선방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 잠들어 버린 것이다. 한밤 중, 사방이 조용한데 방안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들린다. 한참을 무슨 소리인가 생각해 본다. 엊그제 갖다놓은 자명종의 태엽이 다 되었다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쥐가 들어왔나 싶기도 하여 모기장을 조용히 걷어 젖히고 나와 살펴본다. 자명종 시계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다. 다시 집중해 보니 나무 책상의 오른쪽에서 난다.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들으며 한참을 유심히 관찰해본다. 계속 소리가 난다. 아마 도마뱀 암수가 장난치고 있지 않나 짐작하고서 피곤함에 다시 불을 끄고 눕는다. 시간이 새벽 1시인 줄 알았더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랜 인도 생활 가운데 혼자 자고 있을 때라면 어둠 속에서 도마뱀이 벽과 천장을 타고 놀았다. 가끔 소리도 낸다. 어떤 경우에는 천정에서 놀다가 침대나 바닥에 딱 소리 내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도마뱀은 나를 천장이나 벽 사이에 숨어 항상 지켜보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감시자이기도 하다. 한국 큰 절의 전각에서 홀로 잘 때가 생각난다. 그럴 때면 한밤 중 계속하여 이어지는 소리에 깨는 경우가 있다. 천장 구조가 쥐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큰 절의 외딴 전각에 홀로라는 생각에 순간 공포심도 일지만 부처님이 임해 계시는 도량이라 생각하면 상관하지 않고 잠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며 내린 결론은 목조건물의 지붕을 떠받치는 서까래들의 소리일 것으로 짐작한다. 낮에도 소리를 낼 터인데 다만 고요한 한 밤중에만 들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소리도 지극히 고요해 졌을 때 온전히 들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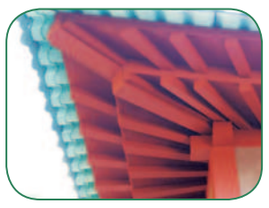
언제나 선원 주변의 이름 모를 온갖 새소리는 완전한 전원 협주곡이다. 여기저기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우러지고 끊어지고 이어지는, 다양한 음색잔치를 끊임없이 펼쳐낸다. 그 가운데 뻐꾸기 울음소리는 단연 으뜸이다. 선방에 앉아 있으면 뻐꾸기 울음소리를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듣는다. 천천히 시작하다가 그 속도와 횟수가 반복적으로 빨라진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 숨 가쁘게 울어댄다.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 절규하며 울어댄다. 거의 절규에 가깝다. 격렬하다 못해 처절하다. 어느 경우에는 모든 감각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어느 경우에는 모든 감각의 문이 닫혀 있어, 새소리는 더더욱 생생하고 역력하다. 어우러진 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듣는다.

일어서 경행할 때에는 이마를 스치는 산들바람과 함께 보리수 잎들이 팔랑거린다. 가끔 세찬 바람이 나무 잎을 휘감고 돌아갈 때 수많은 잎사귀들이 동시에 소스라치게 소리를 낸다. 순간 보리수 잎이 앞뒤로 뒤집혀지며 햇빛과 어우러진다.

순간 온 세상이 반짝거린다. 온갖 감각의 문이 열려져 있어 소리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분절적으로 다가오며, 빛은 층으로 또는 알갱이로 드러난다. 이에 여기저기서 비둘기 등의 수없는 이름 모를 새들이 저마다 쉬지 않고 화답하며 화음을 만들어낸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천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7~4/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이이화의 명승열전 (승속불이의 삶을 산 17인의 승려)	이이화	불광출판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조정육	모과나무
3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8	파이나두라 대논쟁	석오진	운주사
4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9	팔천송반야경	구마라지바/혁담스님	푼다리카
5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담앤북스	10	대승기신론 (전2권)	마명/성본스님	민족사

우리가 몰랐던 한국불교 고승의 '찰나'



이이화의 명승열전
이이화 지음/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가 신념으로 태어난 17 승려의 약전
선방 박차고 나서다…서산, 사명, 용성
한국불교사 방외 인물…도선, 묘청 등

역사가 이이화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엔 일정한 신념이 흐른다. 그것은 당대의 시대정신과 중생 제도의 정신이다. 그가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평등, 평화 등의 이념과 중생 제도의 실천운동은 저자의 역사관에 일정하게 반영돼 있을뿐더러 역사가로서 지난 과거의 일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신념은 저자의 여러 저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작인 〈이야기 한국불교사〉서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불교사의 명과 암을 드러냄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건 그것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승속불이(僧俗不二)의 삶을 산 17명의 승려

신간 〈명승열전〉서 저자는 그의 시선을 한국불교사 속 인물을 향해 돌려 열일곱 명의 승려를 오늘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는 시대정신에 투철했고, 불교적으로는 중생 제도의 신념에 충실했다. 지은이는 이러한 승려들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어쩌면 이 책이 내세울 개성이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서 소개되는 승려는 모두 열일곱 명. 이 가운데는 우리 불교계에서 고승(高僧)이라 일컬어지는 인물도 있고, 승려이지만 잘 조명되지 않았던 방외(方外)의 인물도 있다.

저자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선정된 이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승과 속의 경계를 허물고 번뇌 가득한 세간에 뛰어든 승려이다. 그리하여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몸소 실천하려 했다. 또한 전쟁이나 귀족의 횡포 등에 신음하는 민중을 위한 주의와 주장을 펴기도 했으며, 사회 개혁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 한국불교사'

그동안 우리 불교사의 '위대한' 승려를 다룬 책은 당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의해 '고승(高僧)'이라 불리는 인물을 조명한 예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그들의 행보, 그들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들의 사상적 바탕에서 기술된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 책은 불교라는 종교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한 도서라 보긴 힘들다. 오히려 역사교양서로서 한국불교사, 넓게는 한국사에서 주목해야 할 승려의 행적을 전하고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화쟁(和諍)'과 같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상적 맥락에 관해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것의 드러냄이 이 책의 궁극적 목표는 아닌 것이다.

저자가 고백한 바, 자신은 '불교사상사의 지식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기보다 승려를 대상으로 한 다른 시각의 역사적 해설을 진행하였다는 뜻일 것이다. 더욱이 '이야기체 역사서의 시초', '역사를 가장 쉽게 풀어쓴다' 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자 특유의 서술 방식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낯선 이 열일곱 명의 승려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기록상 남겨진 그들의 행보와 그들이 남긴 문집, 그들과 관련된 민간 설화와 현대 자료 등의 전 방위적 검토에 더불어 저자의 확고한 역사관을 통해 해당 인물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사서 주목 할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책서 소개된 승려 일부는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위인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을 애써 포장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인 기행(奇行)은 물론 그들의 한계까지 서슴없이 기술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끝에 도달한 저자의 평가가 기존의 긍정적인 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신선하다. 한편 저자는 이 책 전반에서 그들이 어떠한 실천적 면모를 보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적 행보가 보인 한계에 대해 논하기도 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열일곱 명의 승려 중에는 우리 역사 속 암흑기라 일컬어지는 시기에 선방을 박차고 나와 동분서주한 영웅적 인물도 있다. 조일전쟁(임진왜란)의 혼란한 가운데 현실로 뛰어들어 나라와 민중을 구제하고자 창과 칼을 든 서산(휴정)과 사명(유정),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던 백용성, 송만공, 한용운도 이 책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저자는 승려로서뿐만 아니라 현실 구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치가로서, 그리고 시대의 짐을 짊어지고 고뇌하던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함께 살피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케 한다.

비록 이들의 행적이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위기의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은 그들의 행적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특히나 2019년 삼일운동 100주기를 맞이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지금 그들의 행적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책을 특징짓는 지점에는 또한 다섯 승려가 있다. 도선, 묘청, 변조, 설잠, 천호가 그들이다. 이들은 우리 불교계에서 조명한 경우가 드물거나 없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들이 승가에 귀의한 승려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 역사의 문제적 인물이란 점은 분명하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도선의 경우 그 행적이 미묘하지만 그가 제창한 풍수지리설, 비보설 등은 신라 말기 혼란한 시기에 고려 건국이라는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에 대한 〈고려사〉 등의 기록이 고려 건국 세력이 지어낸 허구일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말이다. 한편 김시습이란 속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설잠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승려가 되었다. 그의 생은 기행의 연속이었지만 지조 있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절개와 애민정신이 투영된 많은 시편을 남기기도 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인물은 묘청, 변조(신돈), 그리고 천호(이동인)이다. 신채호는 자신의 글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에서 서경 천도운동을 벌인 묘청을 자주진보파 승려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변조는 양민과 천민들 사이에서 성인이라 불렸으며, 고려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정치적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천호의 경우 조선의 근대화에 관심을 두어 왕실과 일부 귀족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을 넘나든 인물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 세 승려는 역사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이야기되거나 그에 관한 흔적이 미미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는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통해 이들의 행적을 재구성한다. 그 가운데 저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 '당신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말이다.

"마음 평화는 삶 극복할 힘"



평화의 첫걸음
만해 한용운 지음/마가스님 엮음
숨 펴냄/7,900원



총독부와 마주하기 싫어 거꾸로 햇빛을 받을 수 없게끔 거처를 지었던 만해 한용운 · 불교의 개혁을 이끈 탁월한 승려이자 아름다운 시인 그리고 뜨거운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정신은 단순히 일제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적 질서를 위한 노력이었다. 이 젊은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늘날의 우리에게 절실한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해 한용운의 글을 새롭게 엮었다.

일제 식민지 치하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정신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이유는 한용운의 '젊은 정신' 때문이었다. 일제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그의 불굴의 정신은 무척이나 뜨겁고 올곧았다. 마가 스님은 만해 한용운의 가르침으로 내 밖의 평화가 내 안의 평화에서 시작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힘 잃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책을 벗 삼아 소중한 삶을 지키며 내 마음의 평화의 세계로 '첫걸음' 을 내딛었으면 한다.

만해 정신에 대하여 조지훈 시인은 "혁명가와 선승과 신인의 일체화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이 지닌 바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다른 양자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한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평했다. 김재홍 교수도 "투철한 독립투사이자 혁혁한 민족운동가로서, 높은 경지의 선승이자 실천적 종교가로서, 또한 문학사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의 시인으로서 만해는 민족사 초유의 입체적 성격을 지닌 '천석종(千石鍾)'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해는 작게 치면 작게 소리가 나지만 크게 치면 칠수록 큰 소리로 울리는 역사의 종, 민족의 종으로서의 상징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어두운 시대

마가 스님 편찬으로 새롭게 듣는
만해 스님의 뜨거운 육성과 시

에서 홀로 진리를 간직한 갈릴레오의 생애를 그린 연극에서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러나 영웅을 낳지 못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고 말한다. 갈릴레오가 당시의 시대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세력일 수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영웅을 현실의 세력에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보자. 그러면 의사의 시대는 영웅의 시대보다 조금 더 불행한 시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말할 수 있다. 의인을 낳지 못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고, 또 의인다운 시인일 망정 시인만을 가진 시대는 그보다 더 불행하다고. 한용운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나의 詩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슬퍼할 줄 압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 말하길, 그의 자손의 시대에 있어서 그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불행의 종말을 예상하고 그 종말과 더불어 그의 시가, 지난 계절의 꽃이 될 것을 바랐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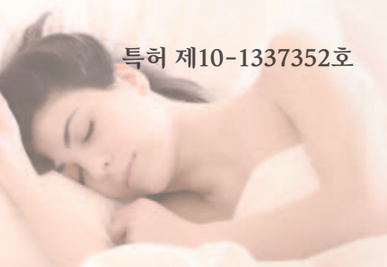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봄나들이 나온 나한과 성보공예

2019 불교중앙박물관 테마전

'나들이 나온 나한', '불심의 향연'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물 4 포함 총 35건 69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나한신앙과 불교공예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4월 2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7월 31일까지 2019년 테마전 '나들이 나온 나한'과 '불심의 향연'을 개최한다. 보물 4건을 포함해 총 35건 69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나들이 나온 나한' 전에서는 여수 흥국사 응진당에 봉안되었던 석가모니 삼존불과 십육나한상(1655), 십육나한도(1723, 보물 제133호)를 선보인다.

1196년(고려 명종26)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여수 흥국사는 조선후기 의승수군 활동의 중심지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흥국사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응진당에는 삼존불, 십육나한 및 권속 등 총 27존의 조각상과 7폭의 그림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석가삼존불과 십육나한상은 1655년(효종 6)에 인균 스님이 조성했다. 인균 스님은 17세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그의 개성이 드러나는 나한상도 여러 점 전한다.

십육나한도는 1723년(경종 3)에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자유로운 존상 자세와 짜임새 있는 배치, 새로운 도상의 수용, 수묵화기법의 활용 등 조선 후기 십육나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조각승 인균 스님과 화승 의겸 스님의 격조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나한(羅漢)'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응공(應供), 살적(殺賊)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나한은 불법(佛法)에 귀의해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말한다. 경전에 나타난 나한은 신통력을 지니고 불법을 수호하여 중생들이 현세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불교공예품의 쓰임을 이해하고 우수한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는 '불심의 향연' 전에서는 2월 26일 일괄 보물로 지정예고된 인각사 출토 공양구(통일신라 8~9세기, 인각사)와 흥국사 소대(조선 후기), 봉은사 청동은입사향완(1334년, 보물 제321호) 등이 전시된다.


흥국사 16나한상(1655)


흥국사 소대(조선후기)

인각사 묘탑 공양구는 2008년 발굴조사 중 승탑지에서 발견됐으며, 병향로와 정병, 향합, 이중합, 금고 등과 금동가릉빈가상이 함께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 공예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인각사 공양구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고, 뛰어난 조형성과 섬세한 기법도 돋보인다.

불교공예는 사찰에서 수행과 신행을 위해 쓰이던 많은 기물들을 말하며, 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의식구(儀式具), 공양구(供養具), 장엄구(莊嚴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불교공예품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의식을 통해 불보살과 교류할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 기능적인 매개체로, '의식'과 '장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예배자가 불보살을 장식하고 공양 ·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박물관이 기증받은 유물 중 일부를 특별 공개한다. 원행 스님이 기증한 달항아리를 비롯해 스님들이 수행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용품과 유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02)2011-1966.

걸작, 화엄사 삼신탱불을 만난다

화엄사 '화엄에 머물다' 展
삼신불탱 복원모사도 전시
서울 아라아트센터 4월 3~8일

조선 후기 불화 중 걸작으로 손꼽히는 화엄사 대웅전 삼신탱불(보물 제1363호)이 서울 나들이를 한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화엄에 머물다' 展을 통해 삼신탱불의 복원 모사도를 선보인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탱불은 18세기 당대를 대표하며 대화사(大畵師)로 이름이 높았던 의겸 스님의 지도 아래, 색민, 정인 스님 등 13명의 화승이 동원된 수작으로 18세기 삼신탱불의 구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높이가 5m에 달하는 대작이면서 3폭 화면에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노사나불이 각각 조성된 형태의 대형불화는 매우 드물어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보물 제1042호)'와 더불어 한국불교회화사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3폭으로 조성된 삼신탱불은 중앙의 비로자나불탱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노사나불탱,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불탱을 모셨다. 법신인 비로자나불도는 화면 중앙 상단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협시인 문수 · 보현보살과 8대보살, 4위의 타방불과 6위의 제불,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성중(호계대신), 복덕대신들이 에워싸듯 배치되어 대칭을 이루고 있다.

키 모양의 광배를 가지고 있는 본존불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지권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귀 · 눈 · 입 · 코 등이 단정하게 표현되어 있고, 무릎 폭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크고 귀는 길다. 다자색 법의의 깃을 따라 연두빛과 분홍빛깔의 보상화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보신(報身)인 노사나불도는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설법하는 모습의 손모양에 보관을 쓴 보살형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사천왕상 2위, 4위의 타방불, 3신장과 4금강이 주위에 둘러 배치되어 있다. 단정한 귀 · 눈 · 입 · 코 등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는 있으나, 둥근 머리광배에 보관을 쓰고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 구슬 장식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보살형 불상으로서의 꾸밈이 돋보인다.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도는 유난히 몸광배가 큼직한 키형 광배에 항마촉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문수 · 보현보살을 포함한 6대보살과 함께 2구의 사천왕상을 그리고, 그 위로는 흔히 등장하는 타방불 대신 가섭 · 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 및 4금강과 3신장, 용왕 · 용녀를 에워싸듯 배치했다.

이번에 제작된 복원 모사도는 준비과정부터 바탕천 등의 재료연구 및 작업방법 연구, 그림채색, 장황(배접 후 봉축 걸이 부착 마감작업)까지 총 3년에 걸쳐 완성됐다. 유래 없는 대작이 복원되는 만큼 문화재 전문 본존과학 인력도 대거 투입됐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전문 연구원 28명이 채색작업에 투입되었고, 바탕천 바느질(5명) · 배접 및 장황(4명) · 보관함 제작(5명) 등 각 분야 최고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했다. (02)733-1981. 박재완 기자

사진으로 보는 백제의 정수 '석탑'

'석탑에 깃든 백제의 숨결' 展
나주박물관 3월 26일~4월 21일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이사장 이순옥)가 창립 5주년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사진전 '석탑에 깃든 백제의 숨결'을 개최한다.

백제 석탑과 백제 석탑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백제계석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석탑들의 사진이 전시된다.

백제계 석탑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는데, 고려시대에 불교가 중앙을 벗어나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긴 세월 우뚝 선 탑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일인 3월 26일 오후 3시에는 이번 사진전과 관련하여 문화재사진작가의 특별강연회와 전시설명회도 진행된다. 장선필 사진작가가 '문화재와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 특별 강의한다. (061)330-7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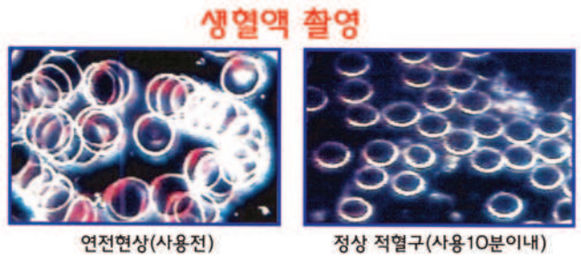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박영희 作, 담양 연동사지 삼층석탑(전남문화재자료 제200호).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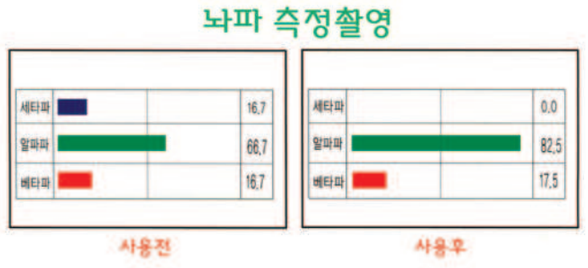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뇌파 측정촬영


검버섯 제거 현상


미군 가져간 신흥사 경판 '환지본처'

3월 18일 美시애틀서 반환받아
1954년 락웰 씨 신흥사서 반출
반환 결심해 65년 만에 제자리

천도의식 · 의례 기록한 '제반문'
17세기 인쇄기술 확인 중요자료



미군에 의해 반출됐다가 65년만에 반환된 신흥사 경판의 앞면(사진 왼쪽)과 뒷면(사진 오른쪽)의 모습. 해당 경판은 사찰 천도의식과 일상의례를 담은 '제반문'으로 양면에 내용이 새겨져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25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국외로 반출됐던 조선시대 경판이 65년만에 환지본처됐다.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주지 우송)는 "지난 3월 18일 미국 시애틀에서 반출됐던 신흥사 소장 경판 '제반문(諸般文)' 87~88장 1점을 반출 당사자인 리차드 B. 락웰(Richard B. Rockwell, 92세) 씨로부터 직접 돌려받았다"고 3월 26일 밝혔다.

신흥사 소장 제반문 경판은 1954년 당시 미 해병대 중위였던 락웰 씨가 수색정찰 중 신흥사에서 반출한 것으로, 그는 경판을 그해 11월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이후 자택에서 경판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결심했으나 구체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난 2018년 1월에 이르러 락웰 씨는 해병대 재직 당시 속초를 촬영했던 사진 279점의 기증 의사와 경판 소장 사실을 속초시립박물관에 알렸다.

이에 속초시립박물관은 지난 2018년 3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이하 국외재단)에 경판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를 요청했다. 이에 국외재단은 조사를 통해 신흥사 반출 경판임을 최종 확인했다. 확인 직후 국외재단은 신흥사에 경판 반출 경위와 자진 반환 의사를 전했고, 신흥사는 지난 3월 18일 미국 시애틀 현재에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인천 능인사 주지)를 파견해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신흥사는 현재 미국 내 신흥사 불화 환수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안 의원도 동행했다.

지상 스님과 안 의원은 락웰 씨의 자택에서 신흥사 경판을 실견하고 경판의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확인했으며, 자진 반환 결심을 한 락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돌아온 신흥사 소장 경판 1점은 사찰에서 이뤄진 천도의식과 상용의례를 기록한 '제반문' 경판이다. 신흥사에 전해오던 '제반문' 경판은 전체 88장으로 구성된 총 수량 44점 내외로 추정되나, 6.25전쟁을 전후로 대다수가 사라져 현재 신흥사에는 14점만 전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경판은 '제반문'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88장이 87장과 함께 목판의 양면에 새겨진 형태다.

'제반문' 경판은 17세기 조선시대 인쇄술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당대 사찰의 경전 간행 사실과 당시 승려들의 생활상, 불교의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87장과 88장에 각각 시주자의 이름이 '연옥(連玉)', '김우상양주(金祐尙兩主)'로 확인돼 목판 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추가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흥사 측은 "이번에 돌아온 경판은 비록 1점에 불과하나,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혼란기에 문화재의 우선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 새삼 일깨워 줬다"면서 "멸실된 줄 알았던 신흥사 경판을 뒤늦게라도 조건 없는 자진 반환방식으로 돌려준 락웰 씨의 양심적 행동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의 원상회복'이라는 난제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돌아온 경판은 3월 26일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내에 위치한 신흥사 유물전시관 1층에 전시되고 있다.

보령 성주사지 동편 삼층석탑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28일 지정 공고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예고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 보물로 승격 · 지정됐으며,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남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2021호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847년 낭혜 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성주사는 17세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등 1기의 탑비와 3기의 석탑이 이미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뒤쪽에 있는 다른 2기의 석탑과 나란히 배치됐으며, 이 같은 가람 배치는 국내서 유일하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라고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로 사찰명이 바뀌었다.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역사 ·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보물 제2021호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의 모습.

숨은 무형문화유산 찾습니다

문화재청 신규종목 발굴 공모

숨겨진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가 진행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능과 예능 등의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새로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종목을 발굴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전통 공연 · 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전통기술 분야(공예, 건축, 미술 등) △전통지식 분야(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 · 우주지식 등) △구전 전통과 표현 분야 △전통생활관습 분야 △ 사회적 의식 · 의례 분야(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전통놀이 · 축제와 기예 · 무예 등 7개 분야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내려받고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종목들은 무형유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엄선된다. 관련 결과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042)481-4994 신성민 기자

인도 산스크리트어 제대로 배워볼까



강성용 교수 '쌍쓰끄리땀 첫마당 1' 출간
우리말 문법 적용된 첫 산스크리트 교재
인도 현지 원어민 녹음 음성파일도 제공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재들은 외국어 교재를 번역한 것이나 영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 문법이 적용된 산스크리트어 교재가 발간됐다.

인도철학과 산스크리트어 전공자인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교재 두 권과 학습서 두 권으로 구성된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을 펴냈다.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저자는 10여 년의 산스크리트어 강의 경험을 기초해 이번 시리즈를 집필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제목부터가 차별성을 보인다. 저자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라는 명칭 대신 '쌍쓰끄리땀'이라는 원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2011년 이미 〈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라는 단행본 저술을 출간하면서 고대 인도의 문법전통을 한국어로 소화화고, 인도고전어 서술에 필요한 한국어 용어를 만드는 사전작업을 해 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어로 된 제대로 된 쌍쓰끄리땀 교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교재를 집필하며 두 가지 중요한 걸음은 내딛는데, 그 중 하나는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고대 인도의 문법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빠니니(Pāṇini)로 대표되는 고대 인도 문법전통은 현대에도 쌍쓰끄리땀을 배우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빠니니 문법전통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기도 한 저자는 인도 전통 문법을 통해 학습자가 쌍쓰끄리땀이라는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순수한 우리말 문법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들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유럽 문법전통의 용어들이다. 저자는 명사의 속격, 여격, 대격, 탈격과 같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대신에 보다 알기 쉬운 가짐격, 임자격, 대상격, 유래격 등의 용어를 사용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쌍쓰끄리땀 문법 입문서로 쌍쓰끄리땀의 발음과 문자(데바나가리), 모음과 자음의 싼디, 기초적인 명사와 동사의 활용법 등을 다룬다. 대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4개 챕터로 이뤄져 있으나 동시에 학습자가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연습문제도 담고 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인도 문법 전공자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쌍쓰끄리땀 교재이며 동시에 우리말 문법 용어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교재라는 점에서 인도학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재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한국 최초로 인도 원어민의 쌍쓰끄리땀 녹음 파일을 제공해 학습자들이 쌍쓰끄리땀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게 시도했다. 그래서 강성용 교수의 이번 교재의 쌍쓰끄리땀 원어 제목은 〈saṃskṛta-vākya-upakriyā〉, '쌍쓰끄리땀 언어로 이끌기'이다. 신성민 기자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TN 불국토상조 "신상품" 출시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 불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안전합니다
- 불교TV가100%투자한 자회사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 (만기시 1년후 100% 환급)

편리합니다
- 전화한통으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 장례전문지도사 24시간 대기
- 전국 어디에서든 서비스 가능 (도서지역 제외)

경제적입니다
- 매월 합리적인 가격(월3만원)
- 물가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가입시 할인혜택
- 10인이상 단체가입시 할인혜택

신행입니다
- 입관 성복례 스님 직접 시다림
-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 제공
- 영가의 극락왕생 인도하는 장엄번 제단 설치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⑥ 춘분(春分)
냉이타락죽 · 돼지감자원추리초회 · 취나물굴림만두

기름기 씻어주는 고마운 봄나물

일기(日氣) 속에 식(食)이 있고 춘하추동의 법식이 있는데 춘분, 봄이로구나. 봄을 기다리는 많은 동식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녕 네가 봄이로구나. 창을 두드리던 매화도 지고 보리에서 순싹이 나오는 봄이로구나.

창고에서 대소쿠리를 꺼내 먼지를 털고 작은 호미 하나 챙겨서 산밭으로 내려가니 노지에 할미꽃이 반긴다. 원추리, 부지깽이, 방아, 곰취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나물은 모두 기운을 모아 함께 한다. 이제 나물밥상이 시작된다,

피우는 꽃조차 시샘하여 찬바람을 몰아오는 꽃샘추위도 이때쯤이다. 산골의 절에도 채전 일구는 손길이 시작되는 절기이다. 하필 축대 작업을 하는 바람에 포크레인의 바퀴에 밭이 사라지고 온통 돌멩이와 거친 흙뿐이다. 날씨가 풀리기만 기다렸으니 부지런히 움직이면 말끔하게 밭이 만들어지리라.

하루는 돌멩이 주워내고 하루는 거름 붓고 사나흘 지나서 경운기 힘을 빌려 로터리 치고 나서야 밭 모양 만들어 파종을 하게 된다. 족히 열흘은 걸린다. 연꽃웅덩이도 내동댕이 쳐져있으니 제자리 잡아 앉혀야 올해도 연꽃 만나러 먼 길 떠나지 않고 도량에서 볼 수 있으리라.

세월의 옷을 입으니 점점 원행을 삼가고 도량 밖을 나서기 마뜩지 않은 날이 늘어난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불교 아닌 것이 없는 세상을 체득하며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 귀한 것을 알게 되어 너무도 감사한 삶이다.


냉이타락죽


돼지감자원추리초회


취나물굴림만두

오랜만에 인연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많이 모여도 걱정이고 적게 모여도 소모공덕 될까 걱정이었건만 30여 명이 왔다. 도량이 들썩하다. 저마다 나물을 노리고(?) 말 끝나기 무섭게 온 산으로 흩어질 기세다. 채집해온 나물을 같이 공부하고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오체투지도 하고, 일행삼매를 꿈꾸며 참선도 하는 모임이다. 어쨌건 참선은 하고 볼일이다. 앉을수록 고요를 만나고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건져 올리는 일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자연식과 사찰음식으로 불교의 좋은 가치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젊은 처자들이 채식한다기에 기특해서 질문하나 던져보니 불교의 우주관은 함께 사는 삶인데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한다. 가장 힘든 게 튀김 닭이라고 한다.

모든 음식은 튀기면 풍미가 나게 되어 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를 풍기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봄나물도 데쳐서 무쳐먹다가 지루하면 전을 굽고 그것도 식상하면 모든 재료 모아서 풀국을 더하여 튀겨서 먹는다. 채소튀김은 고구마든 감자든 기틀을 잡아주는 뿌리채가 있으면 만들기가 쉽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랜스지방이다. 동물성기름은 광합성 작용을 한 채소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사포닌 덕분에 기름기가 씻겨나가지만 트랜스지방 없애는 방법은 세상천지에 없기에 조심해서 먹을 따름이다.

〈증일아함경〉에서는 "과식하면 몸이 괴롭고 소식하면 기력이 약해진다"고 했다.

요즘의 식사법은 밥상머리교육이 사라지고 식생활이 점점 요리하지 않는 간편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좋은 식사법을 걷어치우고 마음껏 먹다가 대사질환이나 무서운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신음하게 된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했듯이 단맛을 경계하고 봄기운 가득한 나물을 가까이 할 일이다.

냉이타락죽
재료: 냉이 100g, 불린쌀 1컵, 우유 500ml, 소금약간
1. 쌀은 2시간 전에 씻어서 불려놓은 후 물을 2컵 넣고 믹서에 갈아준다.
2. 냉이는 손질하여 잘게 썬다.
3. 냄비에 갈은 쌀과 1컵의 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면서 우유를 붓는다.
4. 한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고 뜸을 들이면서 죽을 젓는다. 다진 냉이를 넣어 저어가면서 냉이가 익으면 불을 끈다.
5.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한다.

돼지감자원추리초회
재료: 돼지감자 200g, 원추리 150g, 소금약간, 참기름약간, 양념장(고추장2T · 고춧가루1T · 집간장1T · 매실청 2T · 2배식초 2T · 통깨½T)
1. 고추장, 고춧가루, 집간장, 조청 ,물1T을 넣고 끓인 다음 식힌 뒤 식초, 통깨를 넣는다.
2. 돼지감자는 손질해서 편썰기 후 소금 넣은 끓는 물에 데쳐낸다.
3. 원추리는 손질하여 데쳐서 물기를 짠다.
4. 준비한 재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초장으로 버무린 다음 참기름½T을 넣고 접시에 담는다.

취나물굴림만두
재료: 건표고 2개, 취나물 150g, 당근 10g, 두부 1모, 소금 2큰술, 참기름 2큰술, 전분가루 ½컵, 간장소스(청고추 1개, 홍고추 ½개, 식초, 배즙 2큰술, 집간장)
1. 건표고는 채수에서 건진 후 다져서 물기를 빼고 밑간하여 마른 팬에 덖는다.
2. 취나물은 씻고 끓는 물에 데쳐 물기를 짜고 다진다.
3. 당근도 다진다.
4. 두부는 물기를 짜내고 밑간하여 마른 팬에 덖는다.
5. 모든 재료를 섞으면서 치댄다.
6. 둥글게 경단을 만들어 전분가루에 굴린다.
7. 찜기에 물이 끓으면 넣고 쪄낸다.
8. 고추초간장을 곁들인다. (청홍고추 다져 물기를 짜내고 집간장과 송표간장, 식초, 배물을 넣고 섞는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⑥ 월경통

월경통, 어혈·출혈량이 문제

생리통 혹은 월경통이란 월경 기간이나 월경 기간을 전후하여 아랫배나 허리가 아픈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없이 휴식과 안정만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통증이 사라진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인 질환을 찾아봐야 한다.

월경통이 잘 생기는 경우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월경의 양이 많은 것이다. 월경의 양은 자궁의 질환(자궁근종, 자궁샘근증)이나 염증에 의할 수도 있고, 허약한 탓일 수도 있다. 많은 출혈 때문에 자궁의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때로는 불규칙하게 수축하게 된다. 그 결과 무리한 등산 후에 다리에 쥐가 나듯 자궁근육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월경통이다.

매달 월경기간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나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 30세 이하인 경우, 마른 체격, 성폭력의 경험, 만12세 이전에 월경을 시작한 경우도 월경통을 심하게 겪는 요인이 된다.

월경통은 크게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것과 원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원발성 월경통'이라고 하고, 후자를 '속발성 월경통'이라 한다.

원발성 월경통은 보통 첫 생리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을 때 시작되고, 출산 후에는 감소하는 일반적인 생리통을 말한다. 특별한 질병 없이 강하고 불규칙한 자궁수축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 한의학에서는 몸이 냉하거나 자궁이 약하거나 혹은 정신적 긴장 등으로 기(氣)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어혈(瘀血)이 생긴 탓이다.

속발성 월경통 역시 기본적인 기전과 한의학적 원인이 같긴 하나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 원인 질환이 존재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심해질수록 통증도 심해지고, 통증 지속 시간이 7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없다. 또한 월경의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발열이 동반되는 것과 같은 다른 증상이 생기고, 아기를 출산해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샘근증, 자궁내막염 같은 병들이 속발성 월경통의 흔한 원인 질환이다. 이들 질환은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역시 어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월경의 양이 늘어나서 빈혈이 생기면 기혈(氣血)의 허약이 추가되어 진료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하여 증상을 잡아야 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면 대개는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된다.

속발성 월경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으로 골반정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정맥류가 생긴 상태인 골반울혈증후군이 있다. 이것은 뻐근한 형태의 골반통증이 평소에도 나타나고 월경을 할 때는 더 심해진다. 그리고 자궁내막의 소파수술이나 자궁목의 수술 후에 생기는 손상으로 인한 월경통도 있는데, 이들은 월경의 양이 줄어들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찬 몸, 약한 자궁이 주 원인
통상 4~12주 한방치료로 효과
심신건강 · 몸 보온 유지해야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통증에 대한 개인적인 민감도 차이도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자극에 대해서만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증의 문턱 값'이라 한다. 문턱을 넘는 정도라야 아프게 느낀다는 것인데, 이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고, 각각의 개인도 상황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진다. 체력저하, 수면부족, 영양부족, 스트레스 노출은 통증의 역치를 저하시켜 아픔이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속발성 월경통 환자들의 통증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

원발성 월경통은 진통제로 비교적 잘 완화되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의외로 진통제에 의한 위장과 간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한방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어혈과 허약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는 한약과 침치료 중심의 한방치료의 예후는 양호하다. 통상 4~12주 내외의 치료로 증상이 없어진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속발성 월경통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증에 대한 대증치료는 원발성 월경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증상의 호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샘근증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치료 결과도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자궁내막증은 심한 경우가 아니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치료기간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신과 수유 기간에 따라 현저하게 좋아지기도 한다. 만성골반염증성 질환에 의한 경우는 염증의 중증도와 만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의 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월경통을 예방하는 것은 생식건강을 지키는 일차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평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월경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매일 20분 씩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월경기에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성생활을 피하여 위생 유지는 물론 월경혈이 골반 안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월경통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 결혼을 하고 제 때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종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여 속발성 월경통의 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원발성 월경통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